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4004.42	↓ 코스닥	901.89
	(-117.32)		(-24.68)
↑ 금리 (미국 9년)	2.767	↑ 환율 (원·달러)	1445.30
	(+0.038)		(+7.40)

AI 고평가 공포... 코스피·원화 휘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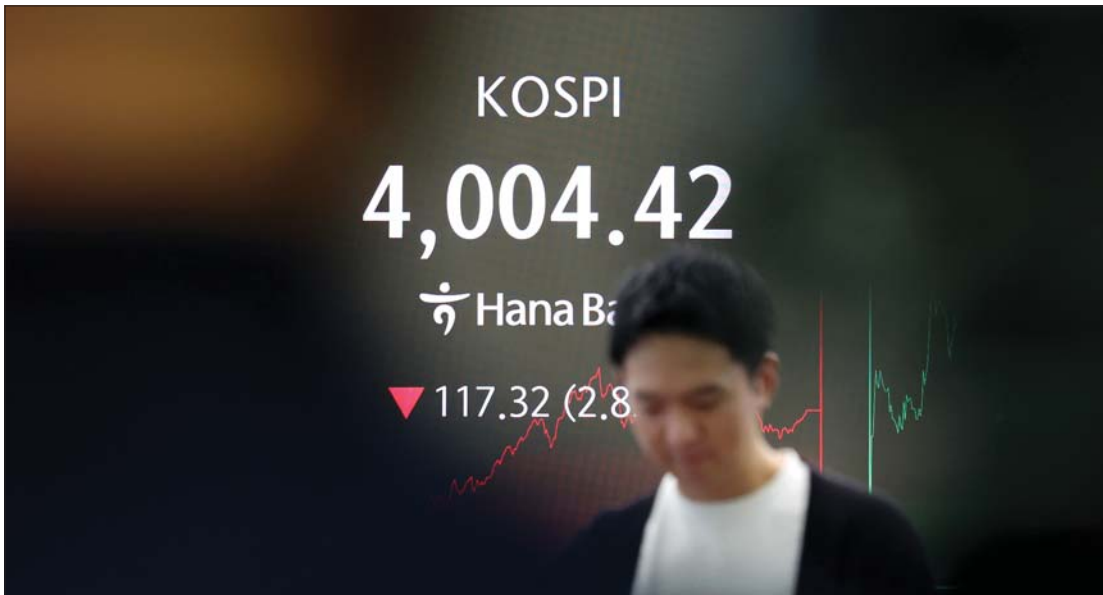
外人 2.6조 넘게 매도 폭탄
7개월 만에 사이드카 발동
장중 3867.81까지 떨어져
삼성전자·하이닉스株 급락
원·달러 환율 1449.4원 마감

‘3867.81(장 중), 4004.42(종가)’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자들의 탐욕이 코스피를 무너뜨렸다. 외국인들이 2조6000억원 넘게 팔아치운 덕분에 약 7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5일 한국거래소는 오전 한 때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지난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증시가 크게 출렁인 후 올해 두 번째 사이드카다. 이어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올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전일 증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코스닥은 코스닥 150선물지수가 6%, 코스닥 150지수가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지속시 발동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117.32포인트(2.85%) 하락한 4004.42에 마감한 코스피는 장 중 3867.81을 기록하기도 했다. 증가 기준 3900선이 무너진



코스피가 전 거래일(4121.74)보다 117.32포인트(2.85%) 내린 4004.42에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26.57)보다 24.68포인트(2.66%) 하락한 901.89,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37.9원)보다 11.5원 오른 1449.4원에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건 8거래일만이다.

간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 속 하락하며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다우존스(-0.53%), S&P 500(-1.17%), 나스닥(-2.04%) 등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다. 미국의 대표 AI 수혜주로 꼽히는 팔란티어는 고평가 우려 속에 7.9% 급락 마감하기도 했다.

일본 닛케이225(-2.50%), 대만 가권지수(-1.42%) 등 AI고평가 논란에 무너졌다.

이날 증시 버팀목은 동학개미였다.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

조원 넘게 순매수세를 이어갔던 개인은 이날도 2조4142억원 순매수하며 하방을 방어했다. 기관 또한 1497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이날 2조6072억원 순매도했다. 11월들어 사흘 동안 6조원 가량을 팔아 치웠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각각 7.8%, 9.2%씩 빠졌으나, 이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인 것으로 보여진다. 증가 기준 삼성전자는 4.10% 떨어진 10만600원, SK하이닉스는 1.19% 하락한 57만9000원에 마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강

력한 강세장이라고 전제 한 뒤 “팔란티어발 AI고평가 논란과 엔비디아 블랙웰 칩 대중 수출 통제 등에 그동안의 고점 부담감이 부각됐다”며 “국내의 실적 시즌과 맞물리며 밸류에이션 논란에 직면했고, 차익실현 압력 증가 및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원화 값도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5원 뚝 1449.4원에 마감했다. 7개월여만에 최고치다. 장 중에는 1450.0원을 찍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 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 2~5시
- 장 소: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기조강연: 유태준 한국피지컬협회장(마음AI 대표이사)
 - 강 연: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 강 연: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
 - 강 연: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 강 연: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참가신청: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문의: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o[®]

中企 ‘3자 승계’ 문 연다... M&A형 특별법 추진

韓 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中企 승계 패러다임 전환
중기·소상공인 성장 집중”

중소기업 창업 1·2세대들이 승계 걱정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통해 ‘(가칭)M&A형 기업승계 특별법’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제외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3자 승계를 위한 온라인 M&A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CEO의 36.8%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됐다. 후계자

가 결정되지 않아 고민인 기업도 많다.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이를 통해 인수자금 등 금융 투자, 중개 수수료 등 보조금, M&A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M&A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를 주로 차용했다. 이를 위해 회계·세무법인, 벤처캐피탈(VC) 등을 대상으로 M&A 중개기관 등록제도도 시행한다. 중기부 산하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승계지원센터 역할을 맡는다.

이날 한 장관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Again 벤처붐 ▲중소기업 스케일업 ▲활기찬 소상공인 ▲연결과 융합의 기업 생태계 조성을 꼽고 “취임 후 지난 100일간은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벤처투자 시장 40조원 조성을 위해 민간의 자금 유입 촉진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 2035년까지 인 모태펀드 존속기간도 연장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연내에 ‘(가칭)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도 발표한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K-양자산업 연합’ 공식 출범

양자기술 산업화·상용화 시동

삼성전자 등 34개 기관 참여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 착수

국내 양자기술이 연구개발(R&D) 중심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이 손잡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

동차, 한화오션, 효성첨단소재, LIG넥스원, 에코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수요기업과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K-양자산업 연합에는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급기업으로 대한광통신, 우리로, 우신기연, 마이크로인피니티, 한국첨단소재 등이, 수요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JW홀딩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4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 “추경호 유죄 나오면 국힘은 100번이고 정당해산 감”
▲與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장동혁 “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사진 뉴시스

▲한동훈 “李, 재판 재개땐 계엄할수도... 민주당이 막겠다고 약속하라”
▲천하람, 10·15 대책 행정소송 예고... ‘8개 지역 제외해야’

▲김종혁, “尹 관저 폭탄주 발언,, 대통령이 할 짓 아냐”
▲안규백 “원자력잠수함, 국내 건조 합당... 美 조선소는 시설·인력 부재”

대만 등 성장사업 매출 31% 상승 쿠팡, 3분기 실적 ‘사상최대’ 기록

3분기 영업이익 2245억 51% 급증
쿠팡플레이 ‘독점 콘텐츠’ 라인 효과
쿠팡이츠 결제추정액 86% 폭증



coupang eats

쿠팡이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소비자를 서비스에 묶는 라인 효과로 로켓 생태계를 강화한 전략이 통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Inc가 5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3분기 매출은 12조 8455억원(92억6700만달러), 영업이익은 2245억원(1억62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엔 대만·파페치·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 성장사업(Developing Offerings) 부문이 있었다. 성장사업 부문의 3분기 매출은 원화 환산 기준 1조7839억원(12억87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다. 쿠팡 거탑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세 자리 수가 넘는 대만에서의 급격한 성장과 쿠팡이츠의 견실한 성

장세”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쿠팡이 이끄는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는 최근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쿠팡플레이의 2025년 10월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83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OTT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쿠팡플레이의 MAU는 2023년 8월 633만명, 2024년 8월 733만명, 2025년 8월 773만명으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특히 올해 EPL, NBA 등 인기 해외 스포츠 리그 중계권을 확보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 LAFC와 중계 계약을 맺는 등, 와우 멤버십 회원을 위한 ‘독점 콘텐츠’ 전략이 라인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쿠팡이츠는 ‘배달의민족’을 제칠 기

세다. 지난 7월 쿠팡이츠의 결제추정금액은 85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3% 폭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핵심 시장인 서울에서는 이미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남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 8월 서울에서 2113억원의 매출을 올려 1605억원에 그친 배민을 앞질렀다. ‘와우 회원 무료 배달’ 혜택을 통한 라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장은 막대한 투자를 동반한다. 쿠팡의 3분기 성장사업 부문 조정 예비타(EBITDA) 손실은 4047억원(2억9200만달러)으로, 대만 시장 공략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34.6% 늘었다. 쿠팡은 올해 성장사업 부문에서 최대 9억5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고객 지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확대되는 구조는 저희가 오랜 기간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투자해온 결과”라며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견고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석화업계 구조조정 ‘지지부진’ ‘연말 골든타임’ 압박에 속도 내나

산업부, 내달까지 자구책 제출해야
롯데·HD현대케미칼 재편 진행중
가격안정·세부조건 등 시간 걸릴 듯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골든타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업계의 실제 감축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산 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지만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지부진해 업계 진정성에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가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주요 석유화학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자구책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국내 전체 나프타분해시설(NCC) 용량 1470만톤 중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을 기업들이 자율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각 사 이 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충남 대산산업단에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그나마 가장 빠르게 재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격 안정과 세부 조건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마무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남 여수산업단에서는 LG화학이 GS칼텍스 측에 여수 NCC를 매각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해 NCC를 통합 운영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울산산단의 에스오일·대한유화·SK지오센트릭은 지난달 외부 컨설팅 기관에 구조재편 전략 자문을 의뢰하기로 자율협약을 체결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업계의 대응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실질적인 감축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재편 흐름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얼마나 줄이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며 “제출 이후에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내부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실제 실행 단계로 옮기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면세점 입찰’ 신세계 등 국내·외서 주시

인천공항, 이르면 내달 입찰공고

신라·신세계 면세 사업권 반납에
DF1·DF2 자리 신규사업자 선정

신세계·롯데·현대 등 참여 주목
中 CDFG·스위스 아볼타 등 고심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빈 인천공항 면세점 공간을 두고 국내 주요 면세점이 참전하는 모습.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 DF1 면세 사업권을 반납한 데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DF2 면세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인천공항은 이르면 12월 초 두 구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선 사업권 입찰을 두고 쟁점이 복잡해졌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내년 4월 28일과 3월 17일 철수할 예정이다. 양사가 사업 기간 만료 전 반납으로 부담할 위약금은 각각 19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철수는 면세업계 전반의 수익성 중심 체질 개선과 맥을 같이 한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 직후인 이달 6일 마카오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도 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했다. 현대면세점은 올해 무역센터점 규모를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축소 운영하는가 하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초 파이공과 거래 비중을 크게 줄이며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두 기업의 철수 결정은 면세업계가 터닝포인트를 맞은 시점과 맞물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기폭제가 되면서 업계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

회에 따르면 올해 9월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은 101만2368명으로 집계돼 5년 8개월 만에 100만 명 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9월 84만9516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해 19.2% 증가한 수치다.

시장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다시 빈 인천공항을 노리는 경쟁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합리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임차료가 제시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2년 당시처럼 높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입찰을 앞두고 신세계면세점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DF2 구역 철수로 신세계면세점은 명동본점과 DF4(패션) 구역만 남아 사업 기반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금번 영업정지 결정으로 임차료 부담이 완화돼 중장기적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DF2 구역 매출(2024년 4039억원)이 전체의 20.6%에 달해 외형 축소가 불가피하고, 명동점과 DF4 구역만 남게 되어 사업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약금 납부로 부채비율이 227.9%에서 552.3%로 크게 저하될 것”이라며 재무 부담을 경고했다.

반면 지난 입찰에서 탈락했던 롯데면세점은 낮아진 임대료로 공항에 재입성할 기회를 맞았다. 현대면세점 역시 동대문점을 폐쇄하는 등 효율화에 나선 상황이라, 업계 2~3위권 도약을 위한 승부수로 이번 입찰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신세계는 재입찰 시 감점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 CDFG, 스위스 아볼타 등 글로벌 사업자도 입찰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입찰은 정성평가 싸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을 반납한 신라·신세계는 물론 과거 철수 이력이 있는 롯데도 자유롭지 못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철수 이력이 없는 현대나 해외 사업자에게 의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종욱 기자

“유망 창업기업 매년 6000곳 이상 육성”

》 1면 ‘중소 3자 승계...’서 계속

한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40조원으로 늘리는 등 ‘모두의 창업’ 시대를 열겠다”면서 “청년창업가 1000개사, TIPS 선정기업 1200개사 등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개사 이상 육성하겠다. 민간 자금의 벤처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 연금·퇴직연금 등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금융권과 국민들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은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절반은 틱스(TIPS) 방식의 R&D로 추진해 벤처캐피탈(VC)이 먼

저 투자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성장단계별로 매칭해 지원한다.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과 유사한 ‘한국형 STTR 제도’를 신설하고 2000억원을 배정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돕는다.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인공지능전환(AI)도 적극 지원한다.

한 장관은 “엔비디아를 통해 한국이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은 스타트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제조데이터가 필요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협업을 필수다. 글로벌로 가기위해선 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SK, 엔비디아 초기 HBM4 공급 ‘양강체제’ 힘 받아

마이크론 HBM4 재설계 가능성

마이크론, HBM4 제품 지연 전망
삼성전자, 미세공정 등 설계 개선
SK하이닉스, M15X 펌 장비 반입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인 ‘HBM4’ 재설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마이크론이 후발 주자로 HBM4 경쟁에 뛰어들며 시장에 가세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강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HBM4 성능 기준을 높이면서 마이크론이 해당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마이크론이 HBM4에서 초당 11기가비트(Gbps)의 동작속도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양호한 수율이나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내부 재설계를 진행하면서 엔비디아향 HBM4 출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규 펌 ‘M15X’

/SK하이닉스

시점이 2027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이에 마이크론이 HBM4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 2분기 HBM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전자 1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에 비해 시장 점유율 및 차세대 기술 측면에서는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미국 기업이라는 이점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4 공급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양사가 엔비디아 초기 HBM4 물량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사는 최근 3분기 실적 컴퍼런스 콜에서 “수요급증으로 내년도 고객사와 납품협의를 끝내고 D램과 낸드를 완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년 HBM 공급 협의를 모두 완료한 만큼 엔비디아향 공급 시기 및 물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했는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HBM4가 엔비디아 루빈에 탑재되는 점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완판 발표가 엔비디아 납품 협의를 마무리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당시 “AI 산업을 위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필요하다”고 언급한 배경에도 마이크론의 HBM4 시장 진입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메모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HBM4 공급망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황 CEO의 발언이 차세대 HBM4 확보 과정에서 마이크론을 당장 주요 공급망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HBM4 시장 진입이 주목받는 모습이다. 직전 세대 제품인 HBM3E까지 기술적 이슈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려왔다. 다만 삼성전자는 HBM3E에 적용되는 10나노미터(nm)급 6세대(1c) D램 기술을 도입하는 등 미세한 공정을 채택해 설계 개선에 뛰어 들었다. SK하이닉스 또한 HBM4 등 차세대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M15X 펌에 첫 장비를 반입하며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으나 국내 업체들도 HBM을 비롯해 메모리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을 지원하더라도 당장 공급 물량이 집중되긴 어렵고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앞서 있어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AI 거품론’ 쓰나미… “단기 조정 후 강세장 재개될 것”

‘사천피’ 붕괴 위기

美 기술주 급락… 韓 증시 ‘롤러코스터’
전문가들 내달 초중순부터 강세 전망

“불안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5일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전한 시장 분위기다. 국내 증시가 장 중 등락 폭만 200포인트 가까운 아찔한 장세를 연출했다. 코스피 지수는 한 때 6.12% 폭락한 3869.36을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장 중 5.91%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0원을 터치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인 것은 간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일며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 개인 2.4조 순매수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학습 효과 때문일까. 이날 대폭락장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식 게시판은 뜨거웠다. 한 30대 직장인 투자자는 “이번 폭락장이 ‘겨울 휴가비 벌 찬스’라고 생각했다”며 “단독방에서도 ‘지금 사라!’는 글이 폭주했다”고 말했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로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등락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 행렬에 뛰어들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이날 들어 코스피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이달 첫 거래일인 지난 3일에는 8861

억원, 4일에는 3조220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지난달 4조6170억원 순매도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반면 지난 10월 한달 동안 코스피를 5조3447억원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내내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3일과 4일 각각 8869억원, 2조998억원 순매도한 데 이어 5일에는 2조6089억원 팔아치웠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시장 내에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풍부한 대기자금이 존재한다”며 “현재 투자자 예약금이 8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 “이번 조정 단기적”

시장이 개인들의 바람대로 돌아갈까.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인공지능(AI) 고평가는

란과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등을 소화한 뒤 다시 상승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 조정 국면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QT) 종료에 예정돼 있어 유동성 축소보다는 확대 추세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양호해 한국 증시의 견조한 이익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11월부터 12월까지 매물을 소화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다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외국인 매도

세는 차익실현으로 해석하면 된다.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AI 종목들에 대한 버블 논란도 외국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 역시 “12월 초 중순부터 다시 강세장이 재개될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과거 1998~1999년, 2009~2011년, 2020~2021년 등 3번의 강세장 때에도 평균적으로 강세 지속일 200일 부근에서 단기조정이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미 연방정부 섣다른 장기화가 맞물리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던 AI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증시의 이익 사이클과 정책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이번 흐름은 추세 전환이 아닌, 과열 구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평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

16일까지 후보 공개모집… ‘보안 리스크 해소·AI 성장 전략’ 과제

김영섭 KT 대표 연임 포기

연내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정 예정

김영섭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3년 만에 KT가 새로운 수장을 맞는다. 내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될 새 KT 대표는 현재 맞닥뜨린 펌토셀(소형기지국)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인한 내부 혼란과 외부 대응을 수습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축인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KT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KT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공개모집을



광화문 KT 사옥 전경.

거쳐 연내에 차기 대표이사 후보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 후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섭 현 대표는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 공모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상반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한 1조7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특히 2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9월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펌토셀(소형기지국) 등 네트워크 장비 관리 부실과 누락 대응으로 비판이 일었다. 급기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 해킹 정황을 통보하고 자진 신고를 권고했음에도, KT는 “해킹 정황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엔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퇴진론이 불붙었다.

현재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 여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변호이동 순간 규모가 한 달 새 두 배로 늘었고, 전 가입자 대상 유심 교체까지 진행되면서 피해 복구 비용과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CT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KT는 지난해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후 올해 3월 ‘AX 토틸 서비스 프로바더’로 도약하겠다는 AI 전환(AX) 사업의 본격적인 전개를 선언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AI/IT 매출 성장세와 전체 매출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다. KT의 지난 1분기 AI/IT 매출은 2800억원 전년 동기 2540억원 대비 10.2% 성장했고, 2분기 3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2790억원 대비 13.8% 성장했다. 그럼에도 전체 매출 비중 내에서는 7~8% 구간에 머무는 수준이며, 시장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든 유·무선 서비스 사업 매출 비중이 큰 상태다.

여기에 더해 사상 최고 분기 영업이익을 낸 2분기 실적은 SKT 해킹 사고로 인한 반사이익과 1월 준공을 마친 서울 광진구 롯데이스트폴에서 발생한 3900억원 수준의 분양 이익이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획기적인 실적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AI/IT 사업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이번 대표 교체를 계기로 내부 위기 관리 역량과 AI 중심의 성장 전략을 동시에 검증받게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보안 리스크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중장기적으로는 AI·클라우드 등 신사업 수익 구조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이 새 대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물가안정 속 갈라진 경기 해석… ‘美 반등’ ‘中 정체’ ‘日 기대’

3국, 같은 흐름 다른 성장 경로

美, 금리 인하 속 주택 반등세 뚜렷
中, 내수 부진·부동산 침체 발목
日, 완화 기대로 자산가치 급등

미국·중국·일본, 세 나라 모두 물가 압력이 꺾였지만 경기·정책의 조합은 뚜렷이 달라졌다. 미국은 물가 둔화 속 주택이 살아나고, 중국은 주택 가격 하락이 내수를 묶고 수출 개선이 일부 완충한 흐름이다. 일본은 실물 경제 둔화에도 정책 기대가 자산가치를 끌어 올린다.

◆ 美, 물가 둔화에 주택 반등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근원 3.0%로 예상(3.1%)을 하회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가 1.5%로 오름폭이 확대된 반면 식품·상품·서비스 상승세는 축소됐다. 슈퍼코어(주거 제외 서비스 물가)는 0.33%→0.35%로 소폭 상승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는 2.9%로 8~9월 연속 동일(월중 상승률 0.2%)해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시사한다.

금융여건과 실물의 연결도 나타난다. 30년 모기지금리는 9월말 6.30%로 내려



(왼쪽부터)판공성 중국인민은행 총재,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4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은행

섰다. 8월 신규주택판매는 전년 동월비 15.4% 증가한 총 80만호로 거래가 살아났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존주택판매(+1.8%)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정책금리 25bp 인하(4.00~4.25%)와 함께 ‘지표 의존’ 접근을 재확인했다. 경제전망(SEP)에서는 2025~2027년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했고 정책금리 경로는 하향조정했다. 연준

은 노동시장 둔화 우려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으나 향후 정책 경로에 있어서는 기존의 신중한 접근방식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 中, 내수·주택 제동, 수출은 버팀목

중국의 10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49.0으로 전월 49.8에서 추가 둔화해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를 이어갔다. 비제조업은 50.1, 종합 PMI는 50.0으로 간신히 포함권을 지켰다. 세부 지표도 생산 49.7, 신규주문 48.8, 고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9월 17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청사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48.3으로 내수 수요·고용의 힘이 약했다. 물가 측면에선 9월 CPI가 -0.3%, 생산자물가(PPI)는 -2.3%로 약세가 지속됐다. 주택은 9월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0.3%) 대비 -0.4%로 하락폭이 커졌다. 가격 하락 도시 수가 57→60개로 늘어 회복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대외 부문은 개선됐다. 9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호조세를 이어가 (8월 4.1%→9월 8.3%)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요국별로는 미국 수출 부진이 지속됐고, 유럽연합(EU)·아세안·대만 등은 양호했다. 수입은 철광석·농산물·의약품 등이 증가 전환해 (8월 1.2%→9월 7.4%) 반등했다.

◆ 日, ‘정책 기대’가 자산 견인

일본의 8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비 -1.5%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2.6%로 높아졌고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은 1.20 수준으로 낮아져 실물·고용 약화가 나타났다.

실질임금도 -1.7%로 하락이 이어져 소비의 복원력을 제약했다. 물가는 9월 코어 2%대 후반으로 오름폭이 재확대됐는데 재화 중심의 상승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정책 기대’에 강하게 반응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확대·완화적 통화 시사가 겹치면서 닛케이 지수는 10월 중 사상 최고치(10월 27일 기준 5만512엔)를 경신했고, 장기금리(국채 10년)는 1.68% 부근으로 상승했다.

엔·달러는 150엔대 후반의 엔저 구간으로 재진입했다.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재정확대+완화 기대에 베팅한 일본 자산 선호)가 주식·채권·환율을 동시에 움직인 형국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국민연금 ‘불장 특수’에 200조 수익… 지속가능성 논란은 여전

5년 평균 수익률 8.13% 기록
수익률 6.5%면 고갈 2090년
여야, 수익률 가정 두고 공방

국민연금공단이 올해에 200조원이 넘는 운용 수익을 벌어들인 가운데 연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 6.5% 이상으로 끌어 올리면 기금 고갈을 209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과거의 연기금 운용 성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지만, 향후 정책 수립에 더 높은 수익률 전망치를 활용할 지에 대해선 정치권의 견해가 엇갈린다.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기금의 연평균 운용 수익률은 8.13%다. 국민연금제도가 출범한 1988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체 수익률 평균인

연 6.82%보다 높았고, 연금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기금 재정 전망 추이에 사용하는 수익률 가정치인 연 4.5%보다도 3%포인트(p) 이상 높다.

국민연금은 올해 1~8월에 약 100조 6000억원을 운용 수익으로 벌어들였다. 지난해 말 연기금 적립액인 1212조원의 약 8.3%에 해당한다. 연금공단의 수익률 공시에는 두달 여의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 운용 수익이 지난달 말까지 지속된 국내 증권시장 호조에 힘입어 이미 2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전 세대가 납부한 연금액으로 은퇴 이후 세대에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연기금에 적립되며, 연금공단은 해당 적립액을 운용해 적립금 규모를 늘린다.

연기금 적립액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체 세대 가운데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적자 전환을 앞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을 오는 2041년으로 전망한다.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내다봤다. 수익률은 보건부의 제5차 재정추계와 동일한 4.5%로 가정했다. 다만 예정치는 수익률을 연 5.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이 2055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 6.5% 수준까지 끌어 올리면 적자 전환이 2070년까지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도 2090년까지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소진

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연 평균 수익률을 5.5%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 전망에서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글로벌 공적연금·국부펀드 분석 기관인 SWF에 따르면 지난 2015~2024년 기준 전 세계 22개 주요국의 공적연금 평균 수익률은 연 6.9%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고위 추계에서 가정한 연 6.5%의 수익률은 충분히 지속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민연금 관련 정책 설정에서 더 높은 수익률 가정치를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운용 수익은 전적으로 투자

에 의존하는 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IMF, 금융대란 등을 거친 지난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해도 기금소진시점이 연장된 만큼,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날 김미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경제 성장기를 벗어났고, 과거와 같은 잣대로 미래의 수익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다 엄격하게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국가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농협-홈플러스 한지붕론… 송미령 “여건 녹록지 않아”

정부, 인수 타당성 검토 중
농가 피해 우려에 속도 조절

농협중앙회의홈플러스인수론이 재차 불거진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토 중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며, 좀더 신중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장관은 5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홈플러스 인수)것이 우리 농업 부문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대목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수전 참여 여부와 관련해 “농협도 적자가 심한 상태”라며 “실제 검토를 하

고는 있지만 녹록지 않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면밀히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농가들이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피해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농협은 국내산 농산물 밖에 팔고 있지 못한다. 홈플러스는 그런 구분 없이 유통했다”라는 점도 언급했다.

농협의 인수전 참여론은 지난달 국정 감사를 거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의도 국감장에서 농림축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해야 농산물 유통망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수전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강호동 농협회장

은 “내부 검토는 없지만 한번 보겠다”고만 답변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후보 2곳은 자금력이나 실제 인수의지 측면에서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해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은 방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비관세장벽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력과 소통 강화가 핵심”이라며 “US(미국)데스크라는 형태의 (양국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창구를 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연구기관 중심 R&D, 산업현장 실증형 전환

≫ 1면 ‘양자기술 산업화…’서 계속

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KIAT, KEIT, KOTRA, KTL 등 지원기관이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이들은 산업별 Use-Case 발굴, 표준화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자기술의 산업화와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중심이던 R&D 체계를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으로 전환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에서 양자산업 산업화를 위한 핵심 청사진인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초전도 QPU(Quantum Processing Unit) 패키징, 극저온 냉각기 등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산업현장의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양자·슈퍼컴퓨팅 결합형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직접 양자모델을 설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심하면 빠른 시간에 핵실험 가능”

2025 국정감사

국방정보본부 北 군사동향 보고
北, 핵 능력 고도화·확장 지속
ICBM, 1.3만km 비행능력 확보
개성공단 일부 건물 철거 진행

국방정보본부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박선원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와 이성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 기자들과 만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북 군사 동향을 설명했다.

박선원 간사는 “북 핵미사일 동향과 관련,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은 2023년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핵능력을 지속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의 핵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토록 유도하고 있다”며 “연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 등 핵 물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박 간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에 풍계리 3번 갭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해 있으며, 총 6회의 지하 핵 실험이 실시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갭도를 폭파해 폐기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박 간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비행

능력 1만3000km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실제 사거리로 고각발사만 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기술을 검증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SLBM)은 1차로 핵 공격을 하고 상대국가로부터 핵 보복을 당하면 2차 핵 공격으로 보복하는 것을 뜻하는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의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 등 수중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 기초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침묵하며 몸값 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을 기점으로 북중 관계의 전면적 발전 흐름이 감지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난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으며, 직전8월달과 비교해선 54%로 급증했다”고 보고 내용을 전달했다.

이성권 간사는 개성공단 일부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우리 정부의 자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구축했던 개성공단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향력 아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철거되고 있다”며 “작업이 2024년 12월18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5층 건물에서 11층까지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만들었던 공단의 공장 일부는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 간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2024년4월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및 북방한계선 인근에 장애물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4월 일시 중단한 이후에 다시 6월25일에 유엔사에 작업 개시를 통보했고 6월27일에 작업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업 내용은 비무장지대(DMZ) 250km 이내에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하고, 철책을 3중으로 구축하고, 방벽을 구축해서 남북을 물리적으로 두 개로 나누는 적대적 두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는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장동혁 “철강산업 일으키는 ‘K-스틸법’ 처리 최선”

충남 당진서 철강산업 간담회 참석
“산업용 전기료 급격한 인상 문제
중대재해법 등에 건설경기 얼어붙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충남 당진시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K-스틸법’을 당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과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할 뿐 민생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단연컨대, 민생보다 앞서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K-스틸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5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사업소에 도착,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과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을 온 당력을 모아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기술 개발에 보조금이나 세제혜

택을 주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장 대표는 “돌이켜보면 당진의 철강산업이 생겨나면서 충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

라며 “그런데 지금 철강 산업이 위기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당진을 넘어 충청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산업용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다. 예전에 우리가 전기료가 낮아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이 에너지 정책에 투영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는데, 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철강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시멘트 산업에

서 제조원가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다. 전기료 부담은 모든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을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거기에 더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었고, 지방의 건설경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맞는 분석”이라며 “결국 철강업계가 그 침체의 직격탄을 또 맞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철강 국내 소비량이 3개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게 되고 결국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 철강생산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말씀드린 것만 해도 삼중, 사중, 오중고가 예측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책은 미흡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당정, 국정자원 화재복구 예산 200억 내외 증액

민주당, 행안부와 당정협의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1500억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행안부 소관 사업·중점 추진 법안을 공유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각 부처에 편성된 DR(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 복구하는 전산 장비 구축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들을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

게 증액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전체적인 증액 규모는 200억원 내외다.

윤 의원은 “통상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데 1584억원 정도가 잡혀있다. 하지만 지금도 관련 부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구체적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와 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예산 증액하자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1500억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사회경제연대기본법 ▲주민 자치 근거를 두는 지방자치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위원장은 “중수정(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기득권을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李 정부 외교성과 뒷받침 박차

민주당, APEC 성과 확산과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 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됐다”며 “향후 위원이 조직되는 대로 별도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막혀있던 외교와 경제의 통로 다시 열렸다. 산업, 무역, 공급망 등에서 협력의 새 틀을 만들며 미래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민주당은 오늘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길어진 인생, 짧아진 근로… 청년, 노후 설계 앞당겨야

고령화시대 금융에서 답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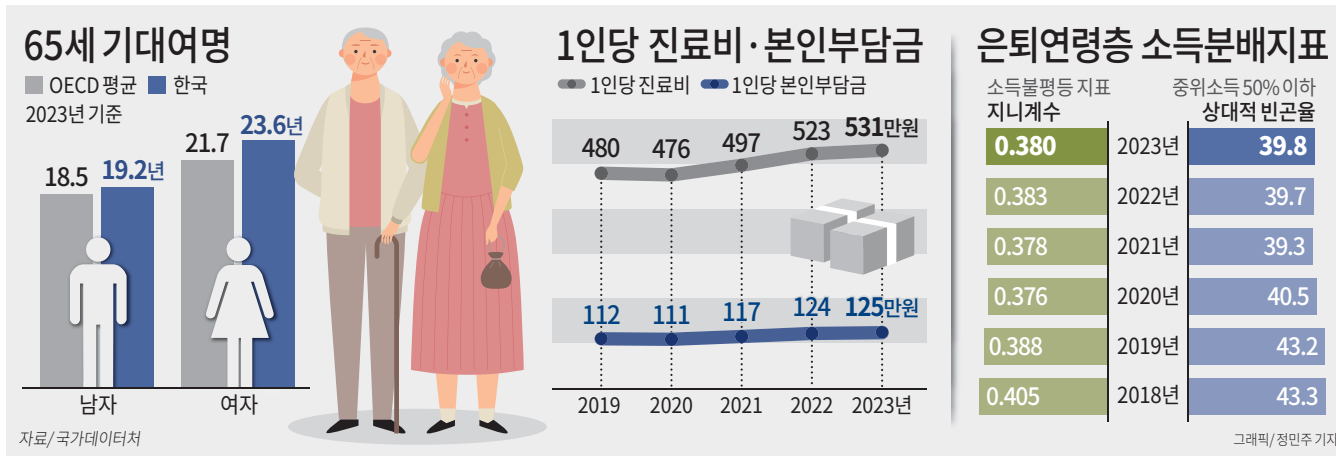
③ 각자도생 시대

기대수명 88세, 근로기간은 단축
청년 취업 늦어져 노후 리스크 ↑
자산형성·연금운용, 생애설계 중점
정부, 청년미래적금 등 지원 확대

‘장수 리스크’가 본격화 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청년 세대도 노후 준비를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길어지는 기대수명에도 근로 기간은 짧아지고, 미래에는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올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5세를 맞은 국민의 기대 수명은 87.7세(남성 86.7세·여성 88.6세)다. 지난 2002년 조사의 77세(남성 73.4세·여성 80.4세)와 비교해 10년 넘게 길어졌다.

HR테크그룹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29.3세(남성 30.4세·여성 28.2세)다. 지난 1998년에는 25.1세, 2008년에는 27.3세로 집계됐다. 청년세대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길



어지고 있는데, 첫 직장엔 입사하는 시기는 오히려 늦어지는 것이다.

◆ 청년 ‘자산형성’ 위한 정책금융

노후 준비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산형성’이다. 의료비, 주거비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만큼, 은행권 예·적금보다는 해당 상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또는 재작년)에 소득이 있었고,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액은 매달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납입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 미래적금은 최대 3년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19~34세 청년이 매달 5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납입액은 매달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우대형은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 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은 불가하며, 청

년도약계좌와 가입자가 상품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드림청약은 지급되는 이자액이 연 4.5%로 통상 연 2% 수준인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 달한다. 월 납입 한도도 100만원으로 일반 청약 통장의 2배에 해당한다. 주택드림청약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생애소득분배… ‘연금 탭’ 쌓아야

자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애소득 재분배도 중요하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중 61.4%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과

수혜금이 차지했다.

근로 활동을 통해 주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 퇴직 연금은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해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기 지급된 연금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예금·채권·펀드 등 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은 투자 성향에 따라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각 운용 기관은 투자 지식이 부족하거나 주기적인 관리가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배한 ‘디폴트옵션’과 ‘생애주기펀드(TDF)’도 운영한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좋다. 개인형 IRP는 DC형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투자 운용이 가능하며, 연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에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프리랜서·자영업자에 속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라면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제도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지급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만큼, 가입 대상인 18~65세 동안 납입액을 최대한 늘려두는 것이 좋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뱅, 3분기 누적 순익 3751억 ‘역대 최대’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 등 성장 비이자수익 전년비 26.7% 증가

카카오뱅크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3751억원을 달성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카카오뱅크는 5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에 111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3751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대출을 통한 이자이익보다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의 총 여신잔액은 45조 2000억원으로 1년전(42조 9000억원)과 비교해 5.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전월세·주

담대 수익은 42조 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9%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같은 기간 1조 7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으로 65%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 대출을 출시하는 등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순이자마진(NIM)은 1.81%로 1년전(2.15%)과 비교해 0.34% 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연체율은 같은 기간 0.48%에서 0.51%로 올랐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고객 트래픽 및 수신 성장에 바탕으로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와 자금운용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비이자이익을 늘리고 있다.

대출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3분기 누적 8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전체 영업수익(2조 3273억원) 중 비이자이익의 비중은 36%로 전년 대비 6% 높아졌다.

특히 3분기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대출비교, 광고, 투자플랫폼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난 2312억원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향후 대출비교 상품군과 제휴사 커버리지를 본격적으로 넓히고 연내 전복은행과 공동대출도 출시해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내 전복은행과 공동대출도 출시해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스마트건설 엑스포 LH 모듈러주택 설치 전경.

/LH

LH, AI 가전 접목 표준 모듈러주택 공개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 참가 삼성전자와 미래 주거환경 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 참여해 AI 가전 기술이 접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발굴·교류 및 건설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일산킨텍스에서 오는 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OSC 등 LH의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성과와 AI 기술 등이 접목된 미래 스마트 주거공간을 제시한다.

전시회에서 LH는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표준평면으로 제작된 모듈러주택을 최초로 공개한다. 표준평면은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와 제품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 기반의 핵심으로 동일한 구조 모듈로 최대 30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LH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주거환경을 제시한다.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도입해 모듈러주택 내 냉장고, 인덕션,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AI 가전과 IoT 기기 등이 반영된 환경을 구현해 소개한다.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스마트건설엑스포를 통해 LH가 만들어갈 미래 스마트 주거 공간과 건설 산업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등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업처럼 이중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수출기업 지원 ‘특판 대출’ 선포

‘관세극복도 하나로’ 출시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입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판 대출 ‘관세극복도 하나로’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극복도 하나로’는 수출입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실적이 없더라도 무역업 고유변호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일반대출(운전·시

설)외에도 무역어음대출과 보증서 담보 대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 ▲수출국가 다변화 추진기업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수출금융 ▲기업어신 ▲외환 수수료 ▲경영컨설팅 등 전반위적인 상

담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에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며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하나은행은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기아 PV5, 전기밴 새 강자 부상 R&D·가성비로 ‘PBV 명가’ 도전

국내 판매 급증·수출 본격화
수출 확대로 글로벌 입지 강화
GM·포드 부진 속 존재감 확대
모듈형 플랫폼으로 활용도 높여
지속 투자로 PBV시장 선도 의지

기아의 최초 목적 기반 차량(PBV) 첫 모델인 PV5가 글로벌 전기 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 밴 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상황에서 기아는 다양성과 확장성 그리고 가성비를 앞세워 판매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의 첫 PBV인 PV5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1814대 판매되며 전달인 9월(672대)보다 169.9% 급증했다. 수출 물량도 지난달 2632대가 선적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기아는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일본 등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생산 물량 극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최대 전기 밴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GM과 포드는 전기 밴 시장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최근 GM은 전기 상용 밴의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GM은 자사의 전기 밴 ‘쉐보레 브라이트트롭’을 생산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CAMI 공장을 전면 폐쇄하고 생산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GM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약 5000억원을 지원받아 현지 최초 전기상용차 제조 공장을 개장하며 주목받았지



기아가 2026년부터 일본 시장에서 판매할 PV5.

만 2년만에 생산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GM 측은 “브라이트트롭 밴의 수요가 예상보다 낮았다”며 “전기 상용차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해명했다.

포드도 전기 밴 시장에서 쓴잔을 들이키고 있다. 포드 전기 밴 E-트랜짓은 올해 2분기에 418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88%나 급감했다. 특히 5월 한 달간 판매량은 단 97대에 그쳤다. 10월 판매량도 260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1088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아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다양한 라인업 구축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기아가 처음 선보인 중형 PBV PV5는 스케이트보드 기반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모듈(어퍼바디)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PV5는 수요와 목적에 따라 승객용·화물용 밴과 하이루프 등 다양

한 차체 형태로 출시된다. 기아는 올해 PV5 카고와 패시저 모델을 먼저 선보였고, 향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 ▲사시캡 ▲오픈베드 ▲라이트 캡퍼 ▲내장/냉동탑차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또 2027년에는 후속 모델 PV7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목적기반차(PBV) 신차 출시와 관련한 R&D 투자도 줄이지 않고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준 기아 재정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신사업과 신규 투자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는 “현대차 그룹은 전기 밴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젊은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원팀으로 단단한 성장 이뤄내겠다”

‘통합 SK온’ 첫 CEO 타운홀 미팅

SK온이 5일 서울 종로구 관훈캠퍼스에서 SK엔부브와 합병 후 첫 최고경영자(CEO) 타운홀 미팅을 열고 ‘통합 SK온’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희 CEO를 비롯해 지난 3일 신규 선임된 이용욱 CEO, 김원기 SK엔부브 CIC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구성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욱 CEO는 사자성어 ‘마부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을 제시하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벌 톱티어가 될 것이란 확신과 의지를 갖는 것”이라며 “꿈을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김원기 사장은 세계 점유율 1위인 SK엔부브의 사업을 소개한 뒤 “SK온과 SK엔부브는 자동차 생태계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품질로 승부한 결과 전 세계 신차의 60%에 우리 유통기유가 들어 있는 만큼, 전동화 시대에도 액침 냉각, 열폭주 방지 기술과 같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품질로 SK온 배터리와 최대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정준 부회장이 이날 타운홀에 참석해 “SK온에서 지냈던 1년 6개월 동안 구성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힌 뒤 “SK온 CEO 직에서는 떠나지만 SK Inc. 부회장으로서, SK아메리카스 대표로서 미국에서 SK온의 성공을 위해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특히 2009년 SK엔부브 초대 사장으로 겪었던 어려움과 성공담을 소개하고 “SK온도 훗날 위기를 극복해 후배들에게 무용담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오늘 내 시간을 잘 보내면 된다. 그게 하나씩 쌓여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석희 CEO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SK온이라는 우산 아래 지난해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에 이어 엔부브까지 한 식구가 됐다”며 “여러 조직이 한 우산 아래 모인 만큼 협력하는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가 우리 SK온이 얼마나 단단하게 성장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 AI로 완성한 모듈러 홈 첫선

LH와 공동 전시로 미래 주거 제시

삼성전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모듈러 홈 솔루션’ 사업을 국내에 소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LH와 함께 ‘인공지능(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공동 전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최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로, 올해는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삼성 ‘모듈러 홈 솔루션’은 모듈러 건축에 최적화된 스마트싱스 기반 AI 홈 솔루션이다. AI 가전과 센서·조명·도어락 등 IoT 기기, 냉난방공조 시설, 에너지 솔루션, 환기 시스템 등 건축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스마트싱스

를 중심으로 연결돼 실내 환경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모듈러 건축과 함께 단기 방식으로 제공돼, 입주자는 입주 후 로그인만 하면 삼성전자 AI 홈이 제공하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일상을 바로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LH 전시장 내에 1인·2인 가구를 위한 51㎡ 규모의 쉽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주거 경험을 제공하는 ‘AI 홈’ 기반 모듈러 홈 솔루션을 구현했다.

방문객들은 현관, 주방, 거실, 침실, 세탁실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 ‘AI 홈’ 솔루션이 제공하는 ▲쉽고 편리함(Ease) ▲시간과 에너지 효율(Save) ▲나와 가족의 건강(Care) ▲강력한 보안과 안전(Secure)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D, ‘기술 1등·원가혁신’으로 흑자 가속

파주 사업장서 ‘CEO 온에어’ 개최

“LG디스플레이의 연간 흑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품질과 안전, 원가혁신, 고객만족도 상승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은 지난 31일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 ‘CEO 온에어(On Air)’에서 3분기 4310억원의 영업 이익 달성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성원에게 지난 3분기 경영 실적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등을 공유했다.

정 사장은 ‘영속하는 LG디스플레이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 사장은 중세 시

대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 외곽에 설계했던 연못인 ‘해자(壕子)’에 비유했다. 그는 “우리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모방하기 어려운 ‘우리만의 해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사장이 제시한 LG디스플레이만의 해자는 ‘T·C·Q·D·R’이다. 이는 ▲T(Technology, 기술 리더십) ▲C(Cost, 수익 구조) ▲Q(Quality, 품질) ▲D(Delivery, 공급 안정성) ▲R(Relationship, 고객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정 사장은 “Q·D·R은 기업의 기본 소양으로, 이 세가지를 토대로 T와 C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SK하이닉스

HBM 등 제품 15종에 글로벌 친환경 인증획득

4세대·5세대 HBM 인증 유일 기업

SK하이닉스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15종 메모리 제품에 대해 글로벌 친환경 인증기관인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 저감’과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SK하이닉스의 HBM이 환경적 우수성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며 “성능과 환경성 모두에서 글로벌 표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탄소 저감’ 인증을 받은 HBM 제품은 ▲16GB HBM2E 8단 ▲16GB HBM3 8단 ▲24GB HBM3E 8단 ▲36GB HBM3E 12단 등 총 4종이다.

HBM 4세대(HBM3)와 5세대(HBM3E) 제품으로 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

/차현정 기자

탄소 줄이고 자원은 다시 쓴다 금호석화, 지속가능 경영 강화

CCUS로 탄소 포집해 자원 재활용
폐기물 제로 공장으로 순환 강화
2050 넷제로 향해 전사적 실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전 계열사에 걸쳐 환경경영 체계를 강화하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를 도입하고, 폐기물 매립 ‘0’ (제로) 인증과 친환경 원료 전환을 확대해 그룹 차원의 ‘3축 감축 전략’을 가동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여수 제2에너지가 폐기물 매립제로(Zero Waste to Landfill) 인증 골드 등급을 갱신했으며, 제1에너지는 신규 인증을 앞두고 있다. 향후 6개 사업장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탄소나노튜브(CNT) 관련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제도 개선에 기여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에는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K&H특수가스를 통해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CCUS 설비를 구축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드라이아이스, 식음료용

탄산, 용접·절단, 폐수처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활용된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여수 1·2공장 플레어스택(가스 소각용 설비)에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광양물류센터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해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허가 건설팅을 진행 중이다. CHP 설비에는 가연성 가스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 사고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상반기 신규 공장 가동과 함께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정을 도입했다. MDI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염소와 가성소다 등으로 환원해 재사용함으로써 원재료 자급률을 높이고 폐수 발생을 줄였다. 바이오 납사와 재생 메탄올을 원료로 활용한 MDI 제품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며 ISCC PLUS 국제 인증을 유지 중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조선업계, 잠수함 기술 경쟁력 입증… 글로벌 수출 본격화

리튬배터리·AIP 등 세계적 수준
중·대형 잠수함 신규 시장 개척

한화오션 필리핀 잠수함 사업 도전
HD현대중공업 페루 등 남미시장 공략

국내 잠수함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자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원팀'을 구성, 해외 사업에 나서며 글로벌 점유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국방·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KSS-III 배치-II 설계를 기반으로 한 3600t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장영실함'을 제안했다. 이 함정은 연료전지 기반 공기불요추진(AIP)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함께 탑재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최대 3

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AIP는 장시간 정속 항해를, 리튬배터리는 고속·회피 기동 등 단시간 고출력 운용을 담당한다.

무장 능력도 전략급으로 격상됐다. 장영실함은 10셀 수직발사체계(VLS)를 갖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이 가능하며, 향후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탑재까지 고려한 구조다. 선수·측면·예인 소나 등 다중 소나 체계와 선체 음향 코팅을 적용해 탐지·회피 성능도 강화했다. 국산 부품 비중을 높여 국가별 요구 성능에 맞춘 제작과 후속 군수지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한국이 AIP와 리튬배터리를 병용하는 실험형 추진체계를 통해 장기 잠항성과 순간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료전지 AIP와 리튬배터리의 병용 운용은 장영실함이 세계 최초로 알려졌다. 일본은 '타이게

이급'에서 리튬 중심으로 효율을 높였으나 AIP를 제외했고, 독일·프랑스는 차세대 AIP와 리튬 통합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스웨덴은 스틸링 AIP 기반으로 연안 은밀성에는 강점을 지니지만 고출력 기동 성능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평가된다.

무장 구성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SSK)임에도 SLBM 운용 능력을 확보해 전략급 타격 플랫폼으로 올라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도산안장호함의 SLBM 발사시험 성공으로 한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일본은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VLS 적용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첫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3단계' 계획

에 따라 잠수함 전력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한화오션은 기지·MRO센터·시물레이터 교육체계까지 포함한 통합 패키지 제안을 내놨다.

HD현대중공업은 중형급 잠수함 기술을 앞세워 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최근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1500t급 'HDS-1500' 공동개발·건설 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조선·전자·무기·에너지·소재 기술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으로 평가한다. 윤현규 국립 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KSS-III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개념·기본설계를 공동 수행하고, 이후 방위사업청 경쟁입찰을 거쳐 한화오션이 상세설계를 맡은 완전 독자개발 모델"이라며 "상선 조선 강국의 기반을 잠수함 기술력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대구 중소기업 현장소통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대구에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강석진 이사장은 이날 대구 동구에 있는 메가콤에서 '찾아가는 중진공' 중소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최재혁 메가콤 대표, 김만구 에이치알티로보틱스 대표 등 대구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11개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진공 지원사업 안내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경쟁력 제고 전략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엔컴퍼니그룹, xEV 제품군 등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선보

〈전기 동력 자동차〉

AAPEX 2025

한국엔컴퍼니 등 그룹 핵심기업 참가
이수일 부회장, 현장서 고객요구 청취

한국엔컴퍼니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서 열리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핵심 계열사 통합 부스를 운영한다. 이는 한국엔컴퍼니그룹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글로벌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 'AAPEX 2025'에 한국엔컴퍼니·한온시스템·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그룹 핵심 기업 3사가 공동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세 회사가 외부 공식 행사에 함께 참여해 공동 부스를 마련한 것은 그룹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엔컴퍼니는 12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글로벌 최대 자동차부품 전시회 'AAPEX 2025'에서 한국엔컴퍼니그룹(한국엔컴퍼니·한온시스템·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 부스에 전시한 메인 목업(mock-up) 차량을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V 납축 배터리 전략군을 선보이고 저전압 리튬이온 배터리의 프로토타입도 공개했다. 전시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전기 동력 자동차(xEV) 대응 제품·전략군 중심으로 구성했다.

한온시스템은 그룹 3사(타이어·공조·배터리) 기술 시너지를 집약한 메인

목업 차량을 전면에 배치해 관람객 시선을 끌었다. 세계 최초 전기차 4세대 히트펌프와 한국타이어의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한국엔컴퍼니의 ES 배터리를 탑재해 그룹의 모빌리티 통합 설루션을 한 번에 선보였다.

이수일 한국엔컴퍼니그룹 부회장(한온시스템 대표이사)은 이번 전시회 현장에 상주하며 글로벌 주요 거래처와 미팅을 진행하고 현지 시장 트렌드와 고객 요구를 면밀히 청취했다고 그룹은 전했다.

이수일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한온시스템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적극 알리겠다"며 "향후 선도적인 열관리 기술 혁신과 그룹 시너지를 기반으로 회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부각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전시에서 미래 기술 두 축으로 꼽히는 '커넥티드 타이어'와 '에어리스' 기술을 결합한 혁신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타이어 센싱 기반 지능형 타이어 기술 'i.Solution'과 공기 주입이 필요 없는 차세대 에어리스 콘셉트 타이어 'i-Flex'를 공개하며 이목을 끌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빅테크에 버스덕트 공급

LS전선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력공급 시스템을 공급한다.

LS전선은 미국 A사와 향후 3년간 버스덕트(Busduct) 공급 프레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S전선은 이번 계약을 통해 A사가 북미 등에 건설하는 데이터센터에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또한 계약은 납기, 기술, 품질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A사의 글로벌 공급사(Vendor)로 등록됐다.

구체적인 물량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약 2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공급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 B사와의 계약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용 기자

효성重, 'BIXPO' 참가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에서 HVDC 등 차세대 전력망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효성중공업은 오는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력·에너지 융복합 엑스포인 'BIXPO(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5'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중공업은 ▲국내 최초 독자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전압형 HVDC(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 ▲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플랫폼 AR MOUR+ ▲스마트글라스를 통한 전력기기 스마트진단 통합 솔루션 서비스 등의 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의 중심 역할이 기대되는 전압형 HVDC를 전면에 내세워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BMW코리아, 30년간 투자·상생 지속… 韓 자동차 문화 선진화

R&D 인프라 구축 등 韓 시장 동행

올해로 법인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BMW그룹코리아는 단순한 외국계 기업을 넘어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BMW그룹코리아는 그동안 수입차 업계의 대표 주자로 투자와 동반성장, 사회 공헌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공 가치 창출에 집중하며 진정한 '한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단기 성과보다 사회적 책임과 장기 투자에 집중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R&D),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BMW 그룹 코리아는 지난 2017년 약 1300억원을 투자



BMW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

해 경기도 안성에 BMW 부품물류센터(RDC)를 확장 이전했다. BMW 해외 법인 중 세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도 최대 시설이다.

국내 R&D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존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 있던 R&D 센터를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확장 이전해 BMW 그룹 R&D 센터 코리아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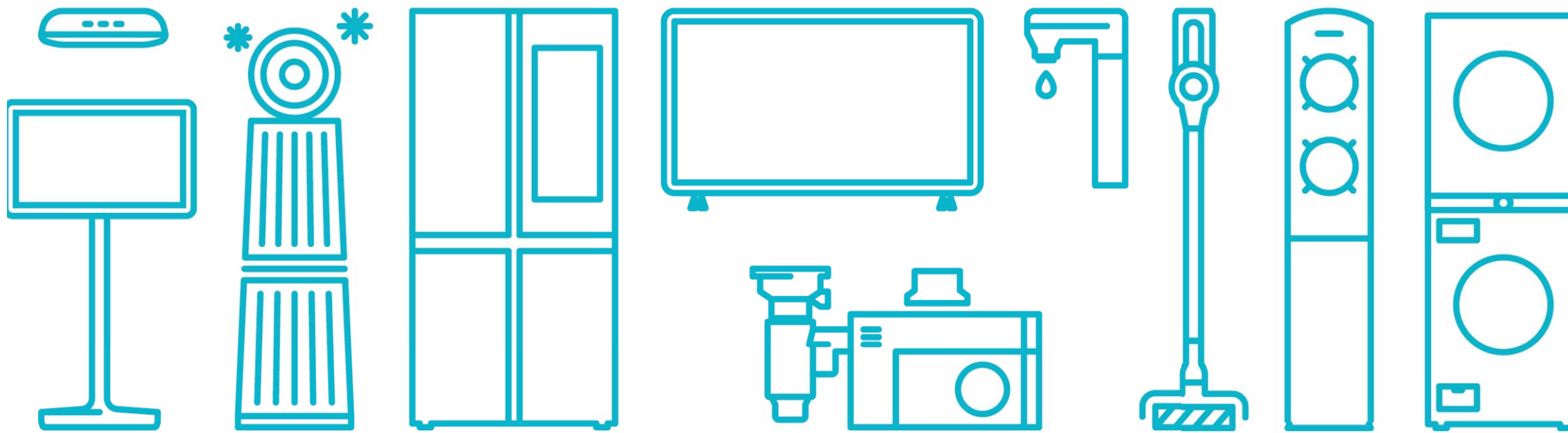
이같은 지속적인 투자로 BMW 그룹 코리아는 한국에 자동차 문화를 선도적

이고 적극적으로 확산해 온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개장 10주년을 맞은 BMW 드라이빙 센터가 있다. 인천 영종도 내 총 29만1802㎡ 부지에 9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조성했다. 드라이빙 트랙과 전시관, 식음료 시설과 더불어 어린이 과학창의교육 공간인 '주니어 캠퍼스', 친환경 체육공원 등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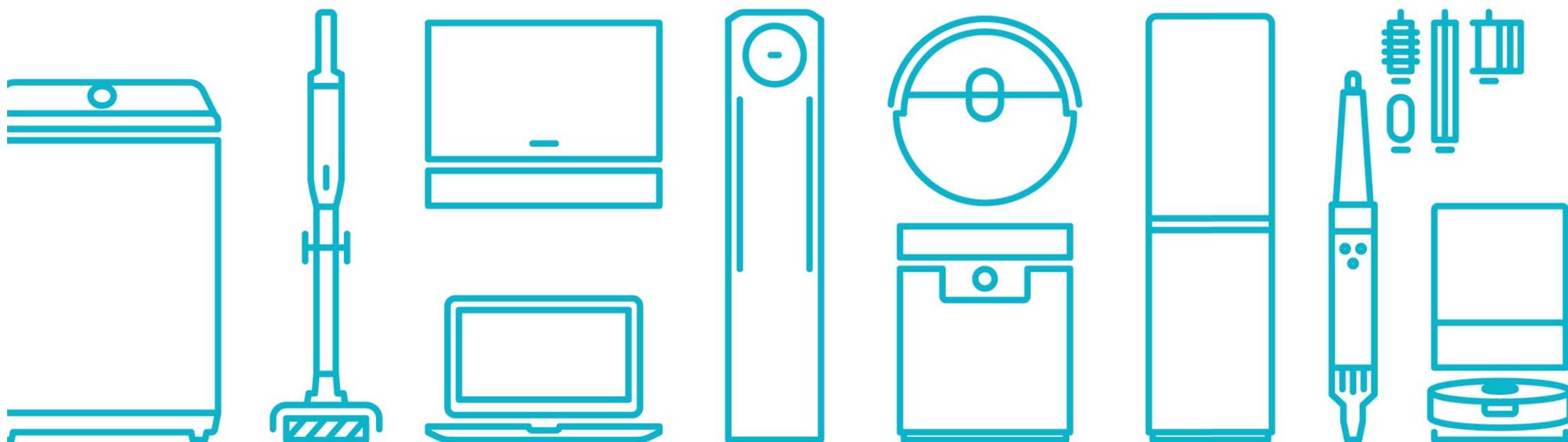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미래 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프리미엄 공용 충전 시설 'BMW 차징 스테이션'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차징 넥스트'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인프라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전국에 약 2500기 충전기를 설치했다. 연말까지 친환경 가치를 반영한 'E SG 차징 스테이션'을 비롯해 약 500기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총 3000기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3분기 기업실적

AI가 견인한 역대급 성과 네이버, 매출 3.1兆 기록

매출 전년비 15.6%, 영업이익 8.6% 늘어
검색, 커머스, 핀테크 등 AI 접목 효과
웹툰, 카메라앱 구독자 증가 등 영향도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1381억원, 영업이익 5706억원, 당기순이익 7347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고 전분기보다 7.6%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6%, 전분기 대비 9.4% 성장했다. 검색, 커머스, 핀테크 등 주요 사업 부문에 AI를 접목한 효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서치플랫폼 매출은 1조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다. AI 광고 솔루션 '애드부스트(ADVoost)' 효율화와 피드 서비스 확대가 주된 요인이다. 네이버 플랫폼 전체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0.5% 늘었고, AI 개입 강화로 흡피드 일평균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커머스 부문은 985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

비 35.9%, 전분기 대비 14.4% 성장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개인화 추천 기능과 N배송 확대, 멤버십 혜택 강화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핀테크 매출은 4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전분기 대비 5.2% 늘었다.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2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7% 증가했다. 외부 가맹점 확장도 스마트스토어 성장세가 이어졌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5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전분기 대비 7.4% 늘었다. 글로벌 웹툰 사업과 카메라 앱 구독자 증가가 영향을 줬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GPUaaS 매출과 라인웍스 유료 ID 증가로 15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8%, 전분기 대비 13.9% 증가했다.

최수연 대표는 "온서비스 AI 전략 아래 사업 전반의 AI 고도화가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수익 창출로 이어졌다"며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환경에 맞춰 AI 접목 분야를 확대하고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컬래버·인도시장 공략으로 크래프톤, 누적 영업이익 1兆

PC 3539억, 모바일 4885억 등 기록
‘펍지: 배틀그라운드’ IP 기반 화제성
모바일선 인도 콘텐츠·서버 확장

크래프톤이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크래프톤은 1~3분기 누적 기준 매출 2조4069억원, 영업이익 1조519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3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긴 것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PC 3539억원, 모바일 4885억원, 콘솔 102억원, 기타 180억원을 기록했다.

PC 플랫폼 매출은 ‘펍지: 배틀그라운드’ 지식재산(IP) 기반 확장으로 전년 대비 29% 늘며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에스파, 지드래곤, 부가티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이 화제성을 높였고, 트래픽 상승으로 이어졌다.

모바일 부문도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GMI)’는 인도 한정 콘텐츠와 서버 확장으로 이용자 경험을 높이며 분기 매출 최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버전에서는

트랜스포머 테마 모드, 성장형 스킨 등 콘텐츠 다변화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IP를 ‘게임’에서 ‘프랜차이즈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 PC·콘솔에서는 지속적인 글로벌 브랜드 협업으로 문화 콘텐츠적 경험을 강화하고, 타이틀 간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배틀그라운드’를 ‘펍지(PUBG) 2.0’ 게임플레이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크래프톤은 인도를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삼고 현지 시장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인도 현지 브랜드 협업, 지역 맞춤형 콘텐츠, 네트워크 환경 최적화 등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BGMI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크래프톤은 지난달 ‘AI 퍼스트’ 기업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약 1000억원 규모의 GPU 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의적 실험 환경을 마련하고,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빛나 기자

엔비디아, 네이버클라우드와 ‘간부’ 맺었다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개발 발표
폴스택 역량·최적화 경험 등 영향

엔비디아가 글로벌 빅테크 중 ‘피지컬 AI’ 시대를 열 간부(친구)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선택한 배경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우수 정보기술 서비스(ITS) 업체들이 AI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앞세워 너나 할 것 없이 ‘폴스택 AI 인프라 기업’을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엔비디아가 손을 맞잡은 곳은 네이버클라우드였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를 지난달 27일 국내 최초 AI데이터센터(DC) ‘각 세종’에서 테크밋업 행사를 열고 서비스형그래픽처리장치(GPUaaS) 비즈니스를 단순 GPU 모델 공급에서 나아가, 모델·플

랫폼·앱을 결합한 패키지화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사업 계획을 공개한 지 나흘 만인 올 10월 31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엔비디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엔비디아와 함께 만드는 피지컬 AI 플랫폼은 현실의 설비와 공간을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으로 복제해 로봇과 AI가 실제 물리 환경에서 의사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통합 기술이다. 예컨대 제조 현장에서 생산라인을 디지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학습된 결과를 실제 로봇에 실시간 반영해 최적화 운영을 구현하는 식이다.

여러 후보군 중 엔비디아가 네이버클라우드를 협력사로 낙점한 배경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AIDC 설계부터 운영, AI 플랫폼과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통합한 ‘폴스택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또 단순한 인프라 제공이 아니라 실제 대규모 서비스를 상용 환경에서 구동하며 축적한 운영 데이터와 최적화 경험이 차별화된 요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의 발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이엔드(최첨단) 냉각 기술인 이머전 쿨링과 직접 액체 냉각(DLC)을 개념 검증(PoC) 중인 네이버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기자 hjk10

LG U+, 밀라노 동계올림픽 중계준비 박차

‘무결점 중계’ 목표 3단계 전송체계
4개 별도 회선 확보, 끊김현상 방지

LG유플러스가 2026년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국내 중계를 위해 안정적인 방송망 구축에 나섰다 5일 밝혔다. 안양사옥을 중심으로 ‘무결점 중계’를 목표로 한 3단계 전송 체계를 마련했다.

올림픽 경기 영상은 밀라노 국제방송센터(IBC)에서 약 2만km 떨어진 국내 안양사옥까지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된다. LG유플러스는 회선 장애에 대비해 유럽과 미국을 경유하는 4개의 별도 회선을 확보했으며, 전 구간에 ‘히트리스 프로텍션’ 기술을 적용해 전송 중 끊김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4개 회선이 모두 장애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SRT(Secure Reliable Transport) 기반 전송망과 현지 모바일망을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안양사옥 방송센터에서 ‘히트리스 프로텍션’ 기술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활용한 MNG(Mobile News Gathering) 무선 송출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안양사옥에서는 전송 회선과 장비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LG유플러스는 파리올림픽 중계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안정적인 고품질의 방송 신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K AI 서밋’ 글로벌 AI 플랫폼으로 진화

8개국 78개 기업·기관 참여

SK그룹의 인공지능(AI) 행사 ‘SK AI 서밋 2025’가 4일 막을 내렸다. 올해 서밋은 8개국 78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국내 최대 AI 행사’에서 ‘글로벌 AI 플랫폼’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

‘AINow & Next’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대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벤 맨 엔트로픽 공동창업자, 팀 코스타 엔비디아 반도체엔지니어링 총괄, 정신아카카오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최 회장은 폭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효율 경쟁’을 제시하며, 메모리 반도체 증산과 AI 인프라

확충, 적극적인 AI 활용을 3대 전략으로 꼽았다.

행사에는 약 3만50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졌다. 특히 최 회장의 기조연설은 사전 등록 1000석이 조기 마감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는 소버린 AI, 에이전트 AI, 제조 AI 등 산업별 세션이 신설돼 기술적 인사이트와 실증 사례가 공유됐다. SK텔레콤의 AI 데이터센터,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기술, 엔비디아와 협력한 AI-RAN(무선접속네트워크) 등 SK그룹 내 주요 기술도 공개됐다.

글로벌 AI 산업을 대표하는 샘 올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SUMMIT 2025’에 참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먼 오픈AI CEO와 앤디 제시 아마존 CEO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를 전했다. LG AI연구원, 크래프톤, 신세계아이앤씨, 슈나이더일렉트릭 등 국내외 기업들도 세션에 참여해 AI 응용 사례를 공유했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3분기 영업수익 4兆… 5.5% ↑

(전년비)

모바일, AI 업무 효율화 등 성과

LG유플러스는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 4조108억원, 서비스수익 3조1166억원, 영업이익 161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영업수익과 서비스수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5%, 4.2% 증가했다. 모바일 부문 성장, AI 기반 업무 효율화, AI DC(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사업 성과가 실적을 견인했다.

다만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 1500억원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34.3% 감소했다. 이를 제외하면 영업이

익은 3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했다.

마케팅비용은 585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늘었으나, 서비스수익 대비 비중은 20.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설비투자(CAPEX)는 4381억원으로 2.2% 감소했다.

무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조7114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무선 가입 회선은 3026만 개로 3000만 회선을 돌파했다.

스마트홈 부문(인터넷·IPTV)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67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서현 기자

증권사, 해외 자본과 동맹 확대… ‘대체투자’ 새 먹거리 부상

KB증권 아폴로 전략적 협력 강화
인수금융·크레딧 딜 공동 주선 추진
삼성증권 테마섹 계열 손잡고 협력
아젤리아 중심 사모펀드 공급 확대
한투 칼라일과 해외 크레딧 독점 판매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와 손잡고 먹거리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다. 글로벌 운용사의 아시아 확장 전략과 국내증권사의 자본·상품 다변화 수요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8일 아폴로그룹 지주사인 아폴로 글로벌메니지먼트와 전략적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폴로는 글로벌 인수금융을 포함한 우량 크레딧 딜에 대해 KB증권에 국내 독점주선권을 부여하고, 아폴로 펀드가 참여하는 해외 크레딧 딜과 관련해 KB증권에 공동 투자와 국내 주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KB증권은 자사가 주선하는 국내 인수금융에 대해 아폴로에 참여 기회를 제



지난 28일 KB증권 본사에서 (앞줄 왼쪽부터)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와 매튜 미켈리니 아폴로 아시아태평양 대표 및 (뒷줄 왼쪽부터) 양현종 IB2그룹장, 강진두 경영기획그룹장, 메이링 림 아폴로 캐피탈 솔루션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재현 아폴로 한국 대표가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공할 전망이다.

이날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매튜 미켈리니 아폴로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아폴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 운용사 중 하나로, 특히 글로벌 사모대출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했다”며 “KB증권은 아폴로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주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주선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계열의 세비오라그룹과 세비오라그룹 산하 사모펀드(PE) 자산운용

사인 아젤리아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체투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대표적인 투자 상품들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증권은 양사의 협력으로 국내 기관과 고액자산가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사모펀드 전략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다양한 글로벌 사모펀드 전략에서 아젤리아가 지닌 뛰어난 역량과 국내 프라이빗 웰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역량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와 차별화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은 “이번 협력은 국내 투자자들이 글로벌 공동투자 및 세컨더리 전략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모펀드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운용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올해 5월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대출펀드 국내 독점 공급을 비롯해 에이리스, EQT, 누버거버먼, CVC 등 글로벌 최상위 운용사들의 상품을 국내에 공급해 대체투자 상품 라인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칼라일그룹과 손잡고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칼라일그룹은 1987년 미국에서 설립된 PEF로, 운용 자산(AUM)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약 4530억달러(약 630조원)다. 한국투자증권은 연간 약 40억달러 규모의 칼라일 해외 크레딧 상품을 국내 독점 판매하고 있다. 칼라일 조성펀드에도 3억 달러를 투자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금까지는 글로벌 금융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1단계를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주요 글로벌 파트너들과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2단계로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글로벌 금융 상품을 지속해 공급하겠다”고 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한투운용 “TDF, 급락장서 진가 드러낸다”

‘TDF 알아서ETF포커스’ 3주년
설정액 5193억·순자산 8115억 달성
AI 반도체, 산업 중심축으로 평가
은퇴 후 인출 전략 중요성도 강조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5일 오전 장중 3900선 아래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패닉 장세를 연출하던 같은 시각,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오늘 같은 날에도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게 타깃데이트펀드(TDF)입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한국투자TDF 알아서ETF포커스펀드’ 출시 3주년 세미나에서 “호황기에는 답답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이 침체하거나 폭락할 때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며 “TDF는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사장은 “요즘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이 방향을 잃고 있지만, 결국 시간을 이기는 투자가 진짜 실력”이라며 “TDF는 시장의 급변 속에서도 자산이 무너지지 않게 설계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투자TDF 알아서ETF포커스 시리즈 3주년’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그는 “나 역시 개인 포트폴리오의 20%를 TDF로 운용한다”며 “테크주 같은 성장자산과 TDF를 섞으면 버블이 터져도 죽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말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삼아 자산배분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젊을 때는 주식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 등 안정 자산의 비중을 높인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TDF 알아서ETF포커스펀드’는 여기에 ETF(상장지수펀드)를 결합해 글

로벌 분산투자를 실현했다.

2022년 10월 출시된 이 펀드는 설정액 5193억원, 순자산총액 8115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3년 기준 위험 대비 수익률(샤프지수)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내 장기성과를 입증했다.

최근 시장을 달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배 사장은 “AI 대표 기업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0~30배 수준으로 결코 과도하지 않다”며 “AI 반도체 기업들은 부를 창출하는 산업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철도 붐 때 철강을 판 카네기가 돈을 벌었듯, AI 시대의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퇴직 후 자산인출 전략과 포트폴리오 설계에 관한 실무 세션도 이어졌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는 ‘인출기 연금 투자 방법’을 주제로 “시장 상황에 맞춰 인출액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가드레일 전략’이 필요하다”며 “목적별 자산을 구분해 운용하는 ‘버킷 전략’을 병행하면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찬진, ‘벨기에 펀드’ 피해자 직접 면담

〈금감원장〉

“배상기준 다시 따지겠다”
불완전판매 땀 재조정 지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 펀드’ 피해 민원인을 직접 만나 “소비자들이 100%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금감원이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민원 창구에 직접 앉아 피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 펀드’ 및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일정은 금감원 임원진이 직접 민원을 청취하는 ‘민원상담 데이(DAY)’의 첫 순서로 마련됐다.

이날 상담에는 벨기에 펀드 피해자 단체의 김화규 회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벨기에 펀드의 가입자로, 투자설명서 핵심 정보 누락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벨기에 펀드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기관이 임차한 오피스 건물 임차권에 투자했다. ‘임대율 100%’와 ‘안정적 수익’을 내세웠지만 금리 급등과 현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각에 실패하면서 전액 손실이 났다. 피해 규모는 약 900억 원, 관련 민원은 120여 건에 달한다.

이 원장은 “현장감사 결과 불완전판매나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이미 처리된 건을 포함해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매주 수요일 임원 12명이 직접 민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이 직접 소비자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보호 문화를 기관 전반에 뿌리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신한투자증권, 중개형ISA 잔고 2조 돌파

신규고객 11만명·자산 5700억↑

신한투자증권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총 잔고가 2조원을 돌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중개형ISA 신규 고객 수가 약 11만명 증가하고, 자산은 약 5700억원 유입되면서 총 잔고 2조원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10월 기준 중개형ISA의 투자자산 구성은 상장지수펀드(ETF)(46%), 주식(32%), 예수금(11%), 환매조건부채권

(RP)(4%), 채권(3%), 파생결합증권(2%), 펀드(1%) 비중이다. ETF와 주식을 합한 비중은 78%로,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 및 적극적인 재산증식 계좌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ISA의 성장은 처음ISA 서비스, 시뮬레이터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연중 지속되는 중개형ISA 특관상품 제공 및 다양한 이벤트가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밸류업 ETF 1조 돌파… 상승세 ‘가속’

거래소,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밸류업지수 78% 급등 ‘역대 최고’

지난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밸류업지수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8%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지난달 말 기준 1687.27로 올해

들어서만 77.8% 오르며 최고치를 새로 썼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인 71.2%를 6.6%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3개 종목의 순자산총액도 1조원으로 지난해 11월 4일 최초 설정액 4961억원보다 102.2% 증가했다.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 기업은 총 167곳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

닥시장 각각 128곳, 39곳이다.

지난달에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브이엠이 예고 공시를 제출했으며, ▲롯데쇼핑 ▲iM금융지주 ▲세아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롯데하이마트 등은 주기적 공시(이전 공시에 대한 이행평가 포함) 제출했다. 10대 그룹 중에서는 롯데와 현대차그룹이 이행공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그룹은 전년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밸류업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제주·전남·부산·경기 의왕 4곳 전력생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기후부, 에너지위원회 개최

에너지 수요지역 인근서 생산키로
사업자-사용자, 전력 직접거래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력을 소비하는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른바 ‘지산지소’를 이뤄 낼 지역을 가리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5일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분산특구 최종후보지 7곳의 사업을 심의한 뒤 제주, 전남, 부산, 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역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아울러 이곳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요금제와 전력 신산업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분산특구 최종후보지로 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신산업활성화 후보지는 5곳으로 경기 의왕, 경북 포항, 부산, 제주, 전남 등이었고, 수요유치 후보지는 2곳으로 충남 서산과 울산이었다.

에너지위원회는 이 중 포항·울산·서산을 뺀 4곳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했다.

제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시장 같은 혁신적 제도가 갖춰진 곳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험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으로 잉여 재생에너지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P2H 사업과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에 참여 및 수익모형을 발굴하도록 하는 가상발전소 사업,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는 V2G 사업 등이 추진된다.

전남은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계통 부적으로 출력 제어가 빈번하다. 태양광 발전소가 밀집한 해남·영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지해 지역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력 생산-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산업단지, 대학교 등에 다양하게 실증한다.

또 재생에너지 99.6%가 위치한 배전망에 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최소화하면서 배전망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과 의왕은 전력 공급 대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 관리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부산은 ESS를 대규모 설치하고 산업단지·항만·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용가에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한다.

의왕의 경우, 공원 내 태양광·ESS·전기차 충전소를 연결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해 저장된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실증한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지연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마련된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은 방문객이 ‘웨어러블 보행보조 로봇’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첨단의료기기 R&D에 7년간 9408억 투입

산업부 등 4개부처 공동 참여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사업에 향후 7년간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투자의 초점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전략적 육성에 맞춰진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키운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산업통상부는 5일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 원(국비 8383억·민자 1025억)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는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국면전환 요소(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을 비롯해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 특히 기

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정책 목표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돼 최근 5년간 국내의 인허가 433건(국내 331·해외 102)과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쉬었음’ 인구 264만명… 전년비 7.3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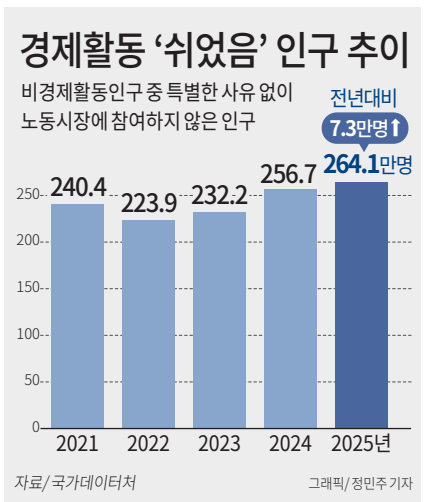
데이터처,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남자 7.9만명, 여자 6000명 감소
이유 35% ‘몸이 좋지 않아서’ 1위

올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지난해 대비 7만 명 넘게 늘어났다. 쉬었음의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64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7만 3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4만 명), 60대(1만 9000명), 50대(1만 6000명), 30대(1만 9000명) 등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했다. 반면 40대(-6000명)와 20대(-3000명), 15~19세(-1만 2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남성이 압도적이었다. 남자 쉬었음 인구가 7만 9000명 증가한 데 반해 여자는 6000명 감



소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2년 223만 9000명에서 2023년 232만 2000명, 2024년 256만 7000명, 2025년 264만 1000명으로 최근 3년간 18%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가 1.1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변동폭이 급격했다.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34.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9.0%),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8.4%) 순이었다.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44만 7000명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15~29세 연령층에서는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34.1%)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30.8%)에 비해 응답 비율도 늘었다.

8월 기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4%로 전년동월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한다.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597만 7000명, 36.9%), 재학·수강 등(327만 1000명, 20.2%), 쉬었음(264만 1000명, 16.3%), 연로(248만 명, 15.3%), 육아(68만 4000명, 4.2%) 등의 비중이 높았다. 가사는 1만 3000명, 재학·수강 등은 2만 1000명 증가했고, 연로는 5만 명, 육아는 4만 8000명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남부발전, 석탄발전 자체기동 실증 성공

전력계통 변동성 대응 강화

한국남부발전이 석탄화력 설비의 자체기동 실증시험에 성공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변동성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5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하동빛드림 본부는 최근 보조보일러 없이도 발전 설비를 자체 기동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09년 보조보일러를 타 발전소로 이설한 이후 하동본부는 그동안 다른 호기에서 생산된 보조증

기를 이용해 기동 초기 증기를 확보해 왔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경부하기 수요 감소로 석탄발전 전 호기를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체기동 능력 확보가 필수 과제가 됐다.

이에 하동본부는 지난해부터 총 5회에 걸쳐 자체기동 실증을 진행하며 기술 절차를 정립하고 운전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번 시험 성공으로 2026년 설 명절이나 봄철 경부하기 기간에도 전 호기 정지 상황에서 계통 복구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동부, 청년 해외지원 우수사례 경진

67개 기관 참여, 12곳서 사례 발표

정부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경진대회를 열었다. 해외 진출 맞춤형 교육모델과 현지 기업 연계형 연구과정을 도입해 실질적 성과 확산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2025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취업연

수사업과 해외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등 6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기관이 부문별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일정 수준의 어학·직무 역량을 갖춘 청년에게 초단기 교육을 제공하는 ‘패스트트랙’과, LG에너지솔루션·SK AX USA 등 국내기업 해외법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구과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단은 이러한 혁신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빠르게 글로벌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홍콩 호텔에서 ‘K-한우’ 메뉴 선보여

한우만두 등 6개 메뉴 ‘호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0월 한 달간 홍콩 5성급 호텔에서 K-한우를 활용한 프리미엄 메뉴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5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는 아시아와 서구 미식 문화가 공존하는 홍콩에

서 한우의 맛과 매력을 현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프랑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출신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üller) 총괄 셰프는 한우의 풍미와 식감을 섬세하게 살린 6가지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해 선보였다. ▲한우 부추전과 부추샐러드 ▲한우 큐브와 떡꼬치 ▲

한우 등심을 얹은 사워도우 토스트 ▲한우롤 ▲한우만두 ▲매추리알을 얹은 한우 육회 등으로 구성된 이번 메뉴는 현지 방문객들로부터 미식과 예술이 어우러진 요리라는 호평을 받았다.

한 방문객은 “빅토리아 하버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속에서 즐긴 한우 요리와 와인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다”며 “한우의 깊은 풍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맛볼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삶도 사랑도, 쇼처럼 계속된다!

쥬크박스 뮤지컬

쇼 메시트 고 온

in 대학로

2025년 10월 30일(목) ~ 11월 30일(일) 대학로 업스테이지극장

홍서준 황인보 고혜미 이유선 윤토왕 손난희 이주훈 김도후 강동석 김상원 박수현 서유인 김혜상 김희선

총괄프로듀서 최대성 | 작/연출 최대성 | 드라마트루그 김동미 | 음악감독 최은지 | 음악작곡 이정현 | 안무감독 이규도
무대디자인 박단추 | 음향감독 박미리 | 조명감독 곽두한 | 영상디자인 유정임 | 무대제작 수 무대미술 | 조연출 이시훈 | 연출보조 우정인

제작 극단 쇼고(showgo) 극단 신명 | 기획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 NOLETICKET | 문의 02-764-9102

※ 본 공연은 서울특별시 '2025 서울형 창작극장' 선정극장에서 진행되어 대관료 할인을 지원받았습니다.

‘천년고도’ 경주… APEC 성공에 세계 문화도시로 도약

시민 146만명 참여, 유치운동 결실
신라 문화·첨단기술 결합 K-APEC
경제효과 7.4조, 관광객 12% 증가
행정·시민 협력, 도시혁신 완성
‘포스트 APEC’ 전략 추진 본격화

경주시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천년고도의 품격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행사는 경주가 ‘세계 속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든 도시 성장의 서사를 보여준 기록으로 남았다.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경제인,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했다. 보문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HICO) 일대는 세계 각국의 대표단과 시민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했고, 신라 천년의 문화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K-APEC 경주 모델’이 세계에 소개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0월 29일 경주 엑스포대공원 APEC경제전시관에서 열린 Invest Korea Summit 2025 현장 투자설명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2021년 7월 AP EC 유치 선언 이후 3년간 범시민 유치 운동을 전개했다. 시민 146만 3,874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500회 이상의 지지선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도시를 변화시켰고, 경주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움직이는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보문관광단지 일대는 회의장, 숙박 시설, 도로, 공원, 조명 등 전면 정비를 거쳤다. 대릉원과 첨성대 일원은 미디

어아트와 홀로그램으로 재탄생했고, 황남빵·곤달비나물·천년한우 등 지역 식재료가 정장 만찬에 오르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품격을 높였다. 국내외 언론은 경주를 ‘세계가 주목한 문화도시’로 평가했다. 신라의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 첨단 기술과 결합해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AP EC 개최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7조 4천억 원, 취업유발은 2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행사 기간 포함 올해 3분기에만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97만 2천여 명을 기록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주는 MICE 산업 중심의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APEC 성료 이후 ‘포스트 APEC 본부’를 신설해 전략기획·미래산업·디지털정책 등 3대 전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포스트 APEC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계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경주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천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 경주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며, “APEC은 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산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시내 10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진행된 1차 행사에 이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1차 행사에서는 3만 5000여 명이 참여해 총 22억 6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2차 행사에서는 환급 조건이 더 개선됐다. 행사 점포에서 4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7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최대 2만원, 행사 기간 총 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전기자 배터리를 활용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가 포항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지난 4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배터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보 자원순환국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유관 기업·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진 경과보고와 유공자 포상,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김해시

올해 열린어린이집 93곳 선정

김해시는 부모 참여와 시설 개방을 강화한 열린어린이집 93개소를 올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열린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모가 보육 프로그램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투명하게 개방하는 곳을 뜻한다.

선정 기준은 ▲공간 개방성 ▲부모의 참여성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자체 자체적인 기준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서류 심사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총 80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천시

금호초 복합시설 국비 확보

영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생활체육시설(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호초 학교복합시설은 노후된 금호체육관을 철거하고, 수영장·목욕탕·도서관·체육관·헬스장 등을 갖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8월 교육부 공모에서 국비 137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문체부 공모 선정으로 국비 40억 원이 추가 확보되면서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해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영천(경북)=김준환 기자

경북도, 환경관리실태평가 전국 1위

지자체 중 유일, 전 항목 우수 평가
선제 점검·감시체계 환경사고 예방

경북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도 김천시가 1위, 철곡·울진군이 공동 3위, 의성·청송·고령군이 공동 4위, 경주시가 5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

검률, 위반(조치)율, 오염도검사율, 고발률, 감시인력 교육 이수율 등을 기준으로 환경관리 개선도를 산출해 광역 및 그로별 기초지자체 순위를 결정했다.

경북도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에 올랐다. 지난해 도는 3,514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며, 관할 172곳에서 2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고발 31건, 조정명지 20건, 경고 172건, 개선명령 20건, 과태료 6,500만 원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경북도는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 배출업소 특별집중점검 ▲상·하반기 정기점검 ▲장마철·명절·미세먼지 등 취약 시기 특별감시 ▲사군 분기별 관계기관 간담회 ▲민간단체와의 합동점검 등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m@

울진 “기차로 떠나는 가을바다 여행지”

동해선 개통 첫 ‘죽변항 수산물 축제’

울진군이 동해선 철도 개통 이후 처음 맞는 가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서 ‘죽변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한다.

울진군은 이번 축제를 중심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를 ‘가을철 울진 관광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교통지원, 이벤트 등을 집중 운영 중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문어, 방어, 붉은대게, 오징어, 광어, 소라 등 동해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맛볼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비롯해 수산물 즉석 경매, 활어잡기 체험, 물회 퍼포먼스, 수산물 해체쇼, 어선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개막 공연에는 이찬원과 황유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 대구, 부산, 강릉 등 주요 도시에서 울진까지 기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news8082@



오는 11월 7~9일 울진군 죽변면에서 열리는 ‘죽변항 수산물 축제’는 청정 바다의 제철 수산물과 울진의 자연·문화를 즐길 수 있는 미식 관광축제로 마련됐다. (사진은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장 전경)

부산교육청, 교육부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모든 지표 통과… 최고 교육청 입증

부산교육청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며 최고 교육청으로서 위상을 다졌다. 부산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모든 평가 지표를 통과해 최우수 교육청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이라는 성과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 확보, 우수 사례 발굴·확산,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실 혁명, 함께 학교,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로 평가했다.

부산교육청은 특히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든 항목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전 지표 통과 및 최우수 교육청 선정 기록을 달성했으며 교육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혁신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

장애아동 재활·돌봄 통합 지원

전라남도는 지난 3일 목포중앙병원에서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식을 열고 장애아동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돕는 전남형 공공재활의료 서비스의 첫 발을 내디뎠다. 감각통합치료실 등 최첨단 재활시설과 의료진이 상주되어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중앙병원이 주관한 개원식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원이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김경욱 넥슨재단 이사장,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의료계, 사회 복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집중재활 치료, 부모 교육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 전문기관이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전남의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다.

총사업비 122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천800㎡ 규모로 건립됐다. 언어·작업·물리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20병상 규모의 낮병동 등 최첨단 재활시설을 갖췄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치료사 14명 등 총 17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지난 8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재활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트럼프 주문 ‘치즈버거’ 정식 메뉴로 경주 주요 호텔들 ‘APEC 마케팅’

소노캄 경주, 韓-캐나다 오찬진행
제공메뉴 고객용 재구성해 출시

힐튼경주 호텔, 美 트럼프 투숙
치즈추가 치즈버거 메뉴로 선택

최근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제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경주 주요 호텔들이 ‘APEC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상회의 기간 세계 각국 정상과 영부인들이 이용했던 식사와 객실을 관광 콘텐츠로 재구성해 경주에 쏠린 세계의 이목을 붙잡아 두겠다는 구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캐나다 정상 오찬과 영부인 차담회를 진행한 소노캄 경주는 당시 제공했던 메뉴를 일반 고객용으로 재구성해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찬 메뉴는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한우 안심 스테이크 등을 조화시켰으며, 특히 월명 케이크 등 시그니처 디저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과 캐나다 총리의 “최고의 식사(the best meal ever)”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힐튼경주 호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숙했던 점을 활용, 당시 룸서비스로 주문했던 ‘치즈버거’를 정식 메뉴로 선보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뉴스시스

통령 측은 아메리칸 치즈 추가, 야채와 소스 제외, 케첩과 감자튀김을 넉넉히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급 인사들이 묵었던 객실도 상품이 됐다. 라한셀렉트 경주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이 머물렀던 객실을 어메니티까지 그대로 재현한 숙박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투숙했던 코오롱호텔도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코스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APEC 효과는 K-디저트 업계로도 번졌다. 경주 명물 황남빵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한 뒤, 시

주석이 “맛있게 먹었다”고 화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 주문이 폭주하고 매장마다 긴 줄이 늘어서는 등 ‘품절 대란’을 빚고 있다. 인기가 치솟자 유사품과 고가 재판매 사례까지 등장해 황남빵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달라”고 공지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APEC을 계기로 경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정상회의의 감동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며 “경주의 문화·미식 자원과 결합한 상품들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알리,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팝업 운영

내일부터 3일간 성수동에 오픈
게임 체험존, 브랜드 전시존 등 준비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7~9일 서울 성수동에 체험형 팝업 ‘11초 장바구니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11초 장바구니 챌린지’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온라인에서 시작한 11초 장바구니 챌린지는 11초 동안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이벤트다. 담은 상품의 총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성수동 팝업 행사장에서는 게임 체험존, 브랜드 전시존 등도 선보여진다. 현장에서 온라인 챌린지 참여 내역을 인증하면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1월 11일 광군제를 앞두고 오프라인 브랜드 경험을 확장해 소비자 접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본격적인 광군제 세일은 이달 11~19일까지 열린다. 매일 10개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한정 판매하고 최대 80% 할인을

제공한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작년 운에 의존하던 이벤트와 달리 올해는 누구나 실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임으로 광군제의 재미를 한층 높였다”며 “MZ세대가 선호하는 성수동에서 힙하고 트렌디한 공간을 마련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장되는 통합 쇼핑 경험을 선사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손종욱 기자

대상, 종로 본사광장서 12일 ‘바자회’

사회적 기업 참여… 가치소비 확산

대상그룹이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위치한 대상 본사 광장에서 ‘2025 대상 존중 바자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대상그룹 바자회’는 대상그룹이 지역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자회 명칭을 기존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대상 존중 바자회’로 변경해 진행한다. 그룹의 핵심 가치인 ‘존중’을 앞세워 가치 소비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와 함께 이번 바자회에서는 대상의 신규 사회공헌 슬로건 ‘RESPECT IN ACTION’을 적용해 ‘존중’을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그룹의 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환경·장애인·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 가치 소비 확산 및 상생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폐목재를 활용한 가구·소품을 판매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우드어스’, 청각장애인 플로리스트를 양성하고 직접 고용하는 꽃 정기구독 서비스 기업

‘플립플라워’, 문화예술 전문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OLMO)’, 청년 자립을 돕는 ‘일하는학교’ 등이 함께 한다.

대상그룹의 다양한 브랜드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대상의 대표 브랜드 청정원과 종가를 비롯해 대상웰라이프, 대상다이브스, 대상델리하임, 혜성프로비전, 대상햇라이프 등 계열사가 총출동해 김치, 조미료, 냉동식품, 건강기능식품, 육류, 반려동물용 영양식 등 총 260여 종 제품을 최대 89%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우드어스’의 폐목재 업사이클링 가구와 생활소품, ‘플립플라워’의 꽃다발, ‘올모’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굿즈 등 다양한 물품 역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 사내벤처 프로그램 ‘유니콘 밸리’ 출범

직원들 아이디어 육성

롯데가 그룹 통합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롯데 유니콘 밸리’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롯데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육성해 그룹의 신성장 동력과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빠른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는 이달 말까지 시니어, 로보틱스, AI, 친환경 등을 주제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연말까지 대상 아이디어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액셀러레이팅에 들어간다. 선정된 사업에는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며, 분사 이후 3년까지 재입사 기회도 제공한다. 롯데벤처스가 멘토링과 전문가 연결을, 롯데인재개발원

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 교육을 맡아 전문성을 높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신동빈 롯데 회장이 혁신을 당부한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신 회장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롯데는 이를 통해 스타트업 DNA가 조직 내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그룹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과 관련한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육성해 사업화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이마트24 ‘킹키부츠’ 협업 먹거리 선택

‘레드벨벳 케이크’ 등 4종

이마트24가 뮤지컬 ‘킹키부츠’ IP를 활용한 협업 상품 4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팬텀’, ‘맘마미아!’에 이은 뮤지컬 콜라보 시리즈로, 연말을 맞아 문화 콘텐츠 팬덤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업 상품은 ‘레드벨벳 케이크’, ‘리얼초코 브라우니’, ‘팝콘 스윗앤솔티맛’, ‘마카다미아 초콜릿’ 등 총 4종이다. 패키지에는 킹키부츠의 시그니처인 레드&사이닝 컬러가 활용됐으며, 디저트 2종과 팝콘에는 뮤지컬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썸스티커 12종 중 1종이 한정수량으로 동봉된다. 레드벨벳 케이크에는 킹키부츠를 상징하는



이마트24가 킹키부츠 IP를 활용한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 /이마트24

‘K’가 디자인되어 있다.

이마트24는 협업을 기념해 이달 한 달간 킹키부츠 4종을 제휴카드(농협·삼성) 및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1+1 덤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롯데칠성음료 ‘순하리 레몬진’ 리뉴얼

롯데칠성음료가 과실탄산주 순하리 레몬진을 출시 4년 6개월 만에 전면 리뉴얼 한다.

‘통레몬 그대로 침출한 과실탄산주’라는 콘셉트의 ‘순하리 레몬진’은 2021년 5월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40% 이상 꾸준히 성장해 올해 상반기 기준 약 6000만 캔 (355ml 캔 환산 기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한 롯데칠성음료의 대표적인 RTD 주류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린 RTD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동결침출공법과 제로슈거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번 리뉴얼을 기획했다. ‘순하리 레몬진’에 새롭게 적용되는 동결침출공법은 기존의 상온 침출과 달리 초저온으로 동결한 통레몬을 얼어 있는 그대로 침출해 기존보다 레몬의 풍미가 약 2배 정도 풍부해진다.

/신원선 기자

컬리, 한 달간 ‘블랙위크’ 대규모 할인전

과일·야채·달걀 등 연중 최저가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11월 한 달간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위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1주차 본프로모션에서는 이달 10일까지 매일 할인 쿠폰과 짝꿍 쿠폰을 제공한다. 누적 판매량 10만 개 이상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추첨을 통해 프리미엄 골드바, 애플 워치 등을 증정하는 ‘블랙위크 래플’도 실시한다. 과일,

야채, 달걀 등을 연중 최저가로 판매하는 종결 특가도 진행한다.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2주차에는 멤버스위크가 열린다. 멤버스 고객은 CJ, 하림 등 인기 식품 브랜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연말 시즌 인기 주얼리 브랜드인 이에르로르, 베르트, 제이에스티나, 먼데이에디션도 할인 판매한다. 가전, 침구, 크리스마스 트리는 추가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손종욱 기자

제약바이오협회, ‘K-AI 신약 임상모델 개발사업’ 총괄

제약바이오協, 민관 협력 주도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방침
GC녹십자, 한미약품 등 주관 기업

인공지능(AI)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AI 기반 신약 개발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의 협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K-AI 신약개발 전 임상·임상 모델 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이자 1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형 국가 연구과제로, 오는 2029년까지 4년 3개월간 정부지원금 약 371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을 구축·개발하고, 전임상 및 임상 단계를 연계해 인공지능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2주관), 삼성서울병원(3주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4주관) 등도 분야별 연구에 참여한다.

1주관 핵심 연구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AI 연합학습 기반 전임상·임상 통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2~4주관에 의해 개발되는 AI 모델들의 유기적 연계·협업을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운영 ▲비임상·임상 데이터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참여 기관이 보유한 연구 및 비

임상·임상 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학습 가능한 연합학습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을 마련하고 보안 기술을 도입하는 등 협력 연구 체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구축될 ‘K-AI 플랫폼’은 제약, 병원, 임상시험수탁(CRO) 등에서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2028~2029년 2단계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임상시험 설계 지원을 통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등 6건의 실증 사례를 달성해 현장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GC녹십자,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등 국내 대형 제약사 다수가 주관 기업에 이름을 올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GC녹십자의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중개연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분석 도구로 쓰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임상 단계 이행을 촉진하는 조력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이미 신약개발 역량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있어서도 독자 기술력을 내재화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비판 신약 후보물질인 ‘HM 17321’은 인공지능 및 구조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설계됐다.

동아에스티도 지난달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세대 인공지능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석·박사 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도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통합 플랫폼으로 ‘제이웨이브’를 보유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의 기존 빅데이터 기반 약물 탐색 시스템인 ‘주얼리’와 ‘글로버’를 통합하고, 모델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첨단 기술의 역할이 제약이라는 산업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기업 입장에서 약물 안전성과 약리 활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한차원 나아가 민간과 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 오픈

스타벅스 코리아가 커뮤니티 스토어 11주년을 기념해 고대안암병원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으로 전환한다. 5일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 오픈 기념 업무협약식에서 손정현 대표이사(오른쪽)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성우 진료부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한미약품-비엠탑
베트남 고혈압 시장 공략

복합제 독점 공급·라이선스 계약

한미약품이 베트남 현지 제약기업 비엠탑과 자사의 여러 고혈압 복합제를 베트남 현지에 수출하는 독점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10월 28~30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열린 국제 제약·바이오 박람회(CPHI 월드와이드 2025)에서 체결됐으며, 이날 계약식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응우옌 치 중 비엠탑 대표가 직접 참석해 서명했다.

한미약품은 비엠탑에 고혈압 복합제 완제품을 공급하고 비엠탑은 베트남 지역 내 허가,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한다. 양사는 한미약품 주요 신약의 성공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베트남 지역에서 고혈압 치료제 접근성을 확대하고, 현지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 해소와 치료 환경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엠탑의 풍부한 현지 시장 경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하이트진로
스코틀랜드 위스키 2종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17세기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방의 전통을 계승한 블렌디드 위스키 ‘보니 앤 클라이드(Bonnie & Clyde)’와 ‘하이랜드 치프(Highland Chief)’를 국내 최초 출시한다고 밝혔다.

‘보니 앤 클라이드’는 은은한 바닐라향과 상큼한 과일향, 가벼운 드라이함이 어우러져 하이랜드의 시원한 공기를 머금은 듯한 깔끔한 끝맛을 선사한다. 알코올 도수는 40%, 용량은 500ml다.

‘하이랜드 치프’는 은은한 피트(peat)향과 바닐라 크림, 신선한 과일향이 조화를 이룬다. 끝맛은 달콤한 꿀과 버터의 여운이 오래 지속되며 고급스러운 향신료의 향과 맛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40%, 용량은 500ml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바사, 글로벌 의약품 CDMO 수주 활동 본격화

IDT 바이오, 국제 행사 대거 참여
제약사·연구기관 등 수주 미팅 진행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회사 IDT 바이오로지카를 통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5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IDT 바이오로지카는 최근 전 세계 제약·바이오 행사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을 강화했다.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2025 월드 백신 학회(WVC 2025)’, 독일에서 개최된 ‘2025 유럽 제약·바이오 전시회(CPHI 2025)’ 등에 참가했다.

WVC 2025는 글로벌 백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 행사다. IDT 바이오로지카는 세포배양 및 미생물 기반 공정, 공정개발, 품질검증, 완제품 등 통합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 및 연구기관과 수주 미팅을 진행했다.



셀리 최 IDT바이오로지카 공동대표(오른쪽 네 번째)와 회사 주요 관계자들이 ‘CPHI 2025’ 행사장에 설치된 IDT바이오로지카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특히 ‘기초 연구에서 상업 제조까지 혁신을 연결한다’는 올해 행사 주제에 맞춰 백신을 비롯해 유전자·면역치료제, 항체의약품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까지 확장 가능한 CDMO 역량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CPHI 2025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조 전문성과 장기적 파트너십의 결

합’을 위한 유연한 생산 인프라, 안정적 공급망, 유럽 중심의 글로벌 규제 대응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전세계 고객사 대상 수주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지난 3~5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바이오 유럽 2025’에서 기초 연구부터 상업 생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제조 솔루션을 소개해 글로벌 고

객사와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셀리 최 IDT바이오로지카 공동대표는 “WVC, CPHI, 바이오 유럽 등은 글로벌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핵심 무대로 IDT의 기술력과 파트너십 역량을 입증한 자리였다”며 “IDT의 비전인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맞춤형 전략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CDMO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항원·세포배양 기술력과 IDT바이오로지카의 유럽 중심 상업 생산 인프라·규제 대응 경험이 결합되며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IDT바이오로지카는 SK바이오사이언스 외형 성장에도 기여했다. 올해 3분기까지 IDT바이오로지카가 누적한 매출은 총 3413억원이며, 해당 매출이 SK바이오사이언스 전체 매출(467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카이스트 등 국내 연구기관 협력 확대”

ODC 커뮤니티 인 카이스트

오가노이드 기술 산업화 등 논의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지난 4일 카이스트(KAIST) 본원 정근모·존해너홀에서 ‘2025 ODC 커뮤니티 인 카이스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ODC(오가노이드 디스커버리 커뮤니티) 행사는 KAIST·오가노이드 사이언스·틀젠·토모큐브·에이블랩스가 공동 주최했다. 생명과학, 공학, 광학기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300여 명이 참석해 오가노이드 기술의 융합적 확장성과 산업화 가능성(Where Organoids & Possibilities Meet)을 논의했다.

첫 세션에서는 최민이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파킨슨병 오가노이드 모델을 통한 디지털 트윈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박장웅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오가노이드 기반 지능 연구의 미래를 조명했다.

해외 초청 강연자로 참여한 브렛 카간 박사는 오가노이드 신경세포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연구를 공유해 큰 관

심을 모았다. 브렛 박사는 오가노이드 뉴런 네트워크의 학습 능력을 실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응용하는 세계적 연구자로서 생물학적 지능과 인공지능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미영 연구소장이 ‘인간 다능성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숙장 오가노이드 활용법’에 대해 강연하며 인간 장 오가노이드 성숙화 기술을 소개했다.

이밖에 ‘우리의 연구가 당신의 커리어가 될 수 있다면?’을 주제로 유전자 편집에서 광학 기술에 이르는 첨단 융합

기술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폐막 연설에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오가노이드는 더 이상 실험실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인공지능·광학기술·로봇공학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해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KAIST를 비롯한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오가노이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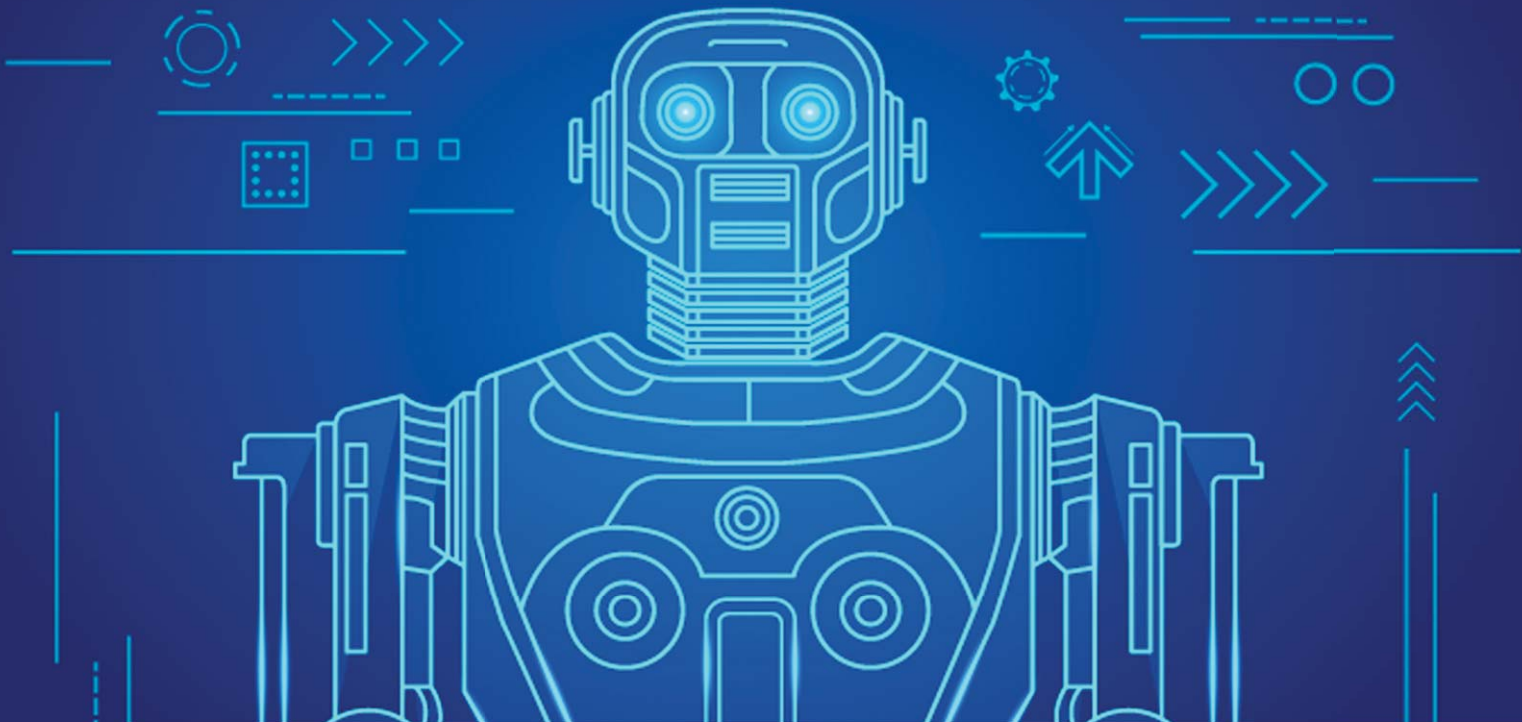
ODC 조직위원회는 “2025 ODC 행사를 통해 다양한 융합 분야 연구자들이 연결됐다”며 “향후 정례화된 커뮤니티를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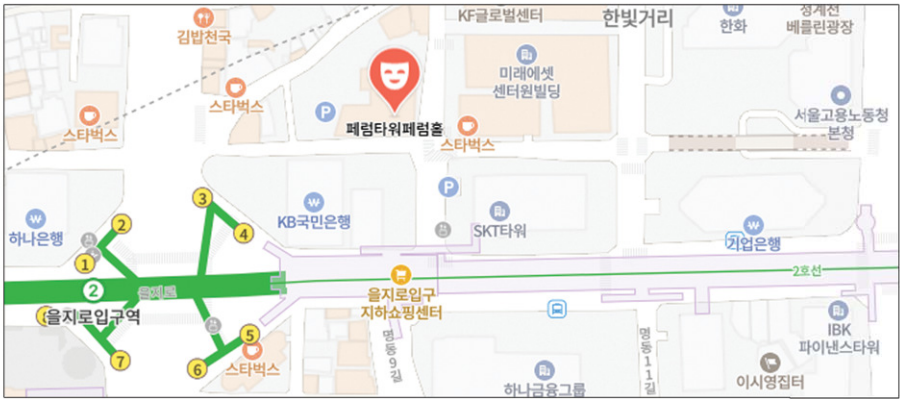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해민 국회의원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피지컬AI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피지컬AI협회장
강연	14:50~15:20	고태봉 iM증권 본부장
	15:20~15:50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15:50~16:20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16:20~16:50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여경협-KCGI자산운용, 우먼펀드 수익금 기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KCGI자산운용과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5일 여경협에 따르면 협약을 통해 KCGI는 우먼펀드 수익금 중 1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여경협은 해당 기부금을 여성기업 역량강화 및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여경협



이창용 한은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오는 11월 6일 스위스 바젤로 출국해 'BIS 총재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BIS 이사로서 이사회·경제자문위원회(ECC)에 참석한다. 이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FF) 패널 토론자 자격으로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을 소개한다. /한국은행



LG생활건강, 청주 무심천 '1사 1천인 사랑' 캠페인

LG생활건강이 지난 10월 30일 청주 무심천 일대에서 '1사 1천인 사랑'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은 올해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역 주요 하천인 무심천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LG생활건강 청주공장 임직원들은 약 2시간 동안 무심천 체육공원 인근(청주대교~제1운천교)에서 50리터(L) 종량제 봉투 10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LG생활건강



효성, 배리어프리 영화제작 지원금 전달

효성은 지난 4일 마포구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 A에서 진행된 '제15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식에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위한 지원금을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김수정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이사, 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 실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효성



우리은행-SH공사, 협력기업 금융지원 '맞손'

우리은행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SH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진환 우리은행 은행장(왼쪽 네번째)과 황상하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은행

현대차·기아, 수요응답교통 '셔클' 해외 시범사업 성료

11주간 헝가리 북부서 실시 배차 대기시간 90% 감소 효과

현대자동차·기아의 수요응답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셔클(SHUCLE)'이 해외에서의 시범사업에 성공하며 글로벌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대차·기아는 해외에서 진행된 수요응답교통(DRT) '셔클'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주간 헝가리 북부에 있는 인구 4만명 미만의 소도시 괴뮐뢰에서 실시됐다. 괴뮐뢰는 버스 5대가 도시 전체 대중교통인 12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 교통 운영 효율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현대차·기아가 지난달 31일까지 헝가리 북부 소도시 괴뮐뢰에서 진행한 수요응답교통 셔클의 운행 모습. /현대차그룹

셔클은 이러한 괴뮐뢰의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투입됐다. 수요 응답 교통인 셔클은 고정 경로를 운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 경로를 생성해 가변적으로

운행한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 현대차·기아는 2대의 셔클 차량을 투입해 운영했고, 주민 2950명이 총 3138건의 호출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셔클 도입 결

과 평균 60분 걸리던 배차 대기 시간이 6분으로 9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현지 주민들은 "차량이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내에 나가기 쉽지 않았는데 차 없어도 언제든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 장을 보기 위해 셔클을 이용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KDI가 주관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헝가리에 수요 응답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무빙스타일' 활용방안 공유

'무빙스타일 202 소상공인 포럼' 실제 매장 내 활용 사례 소개

삼성전자는 4일 서울 삼성 강남에서 소상공인의 날(5일)을 기념해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의 매장 내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무빙스타일 202 소상공인 포럼'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숙박업체, 공방, 필라테스샵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무빙스타일은 디스플레이 종류, 화면 크기, 색상, 스탠드 타입 등 202가지 조합이 가능한 이동형 스크린으로, 매장 인테리어와 업종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포럼에서는 실제 매장에서 무빙스타일을 적용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한옥스테이 '웰컴미스테이크하우스'는 고객 환영 메시지와 숙소 영상을 송출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화과자 공방 '마쥬네'는 제작 과정 영상을 상영해 주문량이 증가한 사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가 4일 삼성 강남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의 매장 내 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무빙스타일 202 소상공인 포럼'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현장에는 식물가게, 향수공방, 네일샵 등 무빙스타일을 적용한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무빙스타일 옛지'는 균일한 베젤로 몰입감 있는 식물 정보 표현을, '무빙스타일 M7'은 매장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룬 깔끔한 활용 사례를 보여줬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삼성전자 사업자물에서 무빙스타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정희준 기자 nauta@

김승연 회장, 한화이글스 준우승 축하

선수단·스태프 총 60명에게 상징색 '오렌지색' 휴대폰 선물

'행운의 요정·승리요정'으로 불리며 재계에서 '야구왕'으로 유명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이글스의 2025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축하하며 투혼을 보여준 선수단과 스태프 총 60명에게 상징색인 오렌지색 휴대폰 선물을 선물했다.

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준우승 직후였던 지난달 31일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응원해주신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가슴에 품고 다시 날아오르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통해 팬들의 열정과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마지막 경기까지 팬 사랑을 실천했다.

이어 4일엔 선수단에게 선물과 함께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단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한화이글스 경기를 응원하고 있다. /한화그룹

며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우승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한화이글스의 더 높은 비상을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선물은 김 회장이 한화그룹과 한화이글스를 상징하는 오렌지 색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한화만의 팀워크'라는 의미를 담아 준비한 것이다. 오렌지색은 한화이글스의 열정과 팬들의 응원을 상징하는 '이글스 시그니처 색'로 자리잡았다. /양성운 기자

CU, T1 '사인 유니폼 증정' 행사 진행

LoL 국제대회 결승 진출 기념

편의점 CU가 글로벌 e스포츠 기업 T1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국제대회 결승 진출을 기념해 '사인 유니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CU는 2022년부터 T1과 협업해 간편식, 음료 등 30여 종의 상품을 선보였으며, 누적 판매량 1500만 개를 돌파

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U는 T1의 결승 진출을 기념해 자체 커머스앱 포켓CU에서 이달 9일까지 경품 행사를 연다. T1 제휴 상품 5종을 구매하면서 포켓CU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하면 스탬프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원하는 선수의 친필 사인 유니폼(액자형)에 응모할 수 있다. 총 5명을 선정하며 당첨자는 이달 12일 발표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인사

- ◆ **한화오션** ◇신규 임원 승진 △강병철 △권기범 △김기환 △김범성 △김병국 △김창수 △박재성 △박정식 △배성우 △윤찬웅 △이용만 △황인열
- ◆ **국립국악원** ◇국악장급 △기획운영단장 황성운
- ◆ **KBS** ◇콘텐츠전략본부 예능센터 △CP 조성숙

부음

- ▲ 권오정(향년 84세)씨 별세, 권경민(JCN울산중앙방송 보도국장)·권경록(울산 니콜한의원 원장)씨 부친상, 윤경·이정은씨 시부상, 권유리(울산교통방송작가)·권민재씨 조부상 = 4일,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2층 203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울산하늘공원. 052-272-1111

SK이노, 사회적기업 전과정평가 지원

'에이트린' 친환경 우산 평가 수행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사회적기업 에이트린의 업사이클 우산 전과정평가(LCA) 검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과정평가는 제품의 원료 수급부터 생산, 수송,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의 전과정평가 데이터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들은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직접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프로보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왼쪽부터)김일수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기술전략실장, 정우재 에이트린 대표, 김우경 SK이노베이션 PR실장이 에이트린 제품 LCA 검증서 수여식 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고 있다. 올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전과정평가가 필요한 기업을 선발해 지원했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 글로벌 검증기관 DNV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원관희 기자 wkh@

루마니아와 한국의 주택정책



전 형 일 의

세상이야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택 정책에서 시작됐다. 미국은 2000년대 초, 저금리로 주택 소유 장려 정책을 시행했고 주택 가격은 급등했다. 이는 2004년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등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 결국 2007년 미국에서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극대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루마니아는 1990년대 공산주의 시절, 전 국민이 자기 집을 갖는 정책을 실행했다. 정부가 모든 주택을 소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국민에게 싼 가격에 주택을 판매했다. 결국 전 국민의 96%가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겼다.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할 상황이 생겨도 빈집이 없다. 전세나 월세 등도 여분의 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럴만한 집이 없다. 사업자가 여러 채를 짓거나 매입해 전세나 월세로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루마니

아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성인이 돼서 독립하거나, 결혼을 해 분가 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점차 대가족이 된다. 게다가 이사가 수리를 하지 않아 집은 노후화가 되면서 문제 있는 집들은 늘어만 난다. 결국 루마니아에서는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다.

1969년, 왕정국가였던 루마니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정권을 잡은 카다피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격차를 없애는 사회주의 국가를 약속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집 문제가 고민이다. 반면 부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임대료만으로도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카다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특한 주택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모든 주택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각자가 선착순으로 스스로 자기가 살 집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 집이 빈집이면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선포하면 된다. 미국 서부 시대 때 먼저 땅을 잡으면 임자인 것과 같은 방식이다.

문제가 생겼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잠시 집을 비워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군가 가구를 집 밖으로 들어내고 자

기 집이라고 선포하면 됐다. 그래서 자물쇠를 채웠더니 자물쇠 금지 정책을 취했다. 결국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지위가 높고 부자들만이 마음에 드는 집에서 걱정 없이 그 집에서 살 수가 있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주택 정책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사회주의식으로 하면 이사 수요가 없다. 또 신규 주택도 짓지 않고 집도 수리하지 않으며 가구도 새로 사지 않는다.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은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성공한 사례다. 건설경기가 없으면 경제 발전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한 예를 찾기 힘들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고위층의 부동산에 대한 불벌·탈벌·위벌 등의 위선과 이중성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정책과 규제대로 사회가 변해왔다면 지금 세계는 유토피아가 됐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규제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지 예상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만 들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에 나쁜 결과다. (‘규제의 역설’)

/前 언론인·명리학자·철학박사

저서 : 명리 인문학, 사주팔자 30문 30답

ETF의 미래, 키는 ‘사람’이다



허 정 윤

(자본시장부)

글로벌 증시가 전례 없는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23년 100조원을 넘어선 한국 ETF 시장은 올해 270조원을 돌파했고, 내년이면 300조원 고지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야말로 ‘ETF 전성시대’다.

하지만 화려한 외피 속에서 업계는 정작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ETF 시장을 키운 운용역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커지는데, 그 시장을 실제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젊은 ETF 매니저들은 “일은 늘어나는데, 매번 신입은 뽑지만 오래 업계에

남아 있는 사람이 적다”고 토로한다. ETF 운용은 흔히 ‘기계적인 복제’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수십 종목의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괴리율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세밀한 작업이다. 지수 구성 종목의 감자나 분할 하나를 놓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보상은 조직 구조 안에 갇혀 있고, 운용역 개인의 공로는 평가받기 어렵다.

자산운용 업계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한 중견 매니저는 “ETF 매니저가 돈을 못버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성과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팀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푸념을 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운용역들은 증권사로 이탈하고 있다. ETF 거래를 중개하는 LP(유동성공급자)로 옮겨가거나, 다른 업종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 이들 사이에서 “운용사에 남아봐야 미래가 안 보

인다”는 냉소가 퍼지는 이유다.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콘셉트를 시도할 사람이 줄어드니, ‘상품 카피(베끼기)’가 늘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국내 ETF는 1031종목, 순자산총액은 26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새 50% 넘게 불어난 규모지만, 유사 ETF가 범람하면서 “상품벌 특색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매니저들은 새로운 전략을 설계하기보다 출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그 과정에서 상품의 질보다 ‘몇 개를 내느냐’가 성과의 기준이 되고 있다.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금융상품이다. 그렇기에 더 세밀하고 성실한 운용이 필요하다. 좋은 ETF 운용역이 시장에 남아야 좋은 상품이 나온다. ETF 시장의 진짜 성장은 ‘규모’가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된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9월 17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뒤늦게 이사가 웬 말인가. 48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 60년생 오후에 음주는 절대적으로 사양해야 할 것. 72년생 친구 만나 돈 자랑하지 않도록. 84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니 반갑다.



37년생 꿈을 안 믿을 수도 없으니 결단이 필요. 4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도 꼼꼼히 살펴라. 61년생 계산에 차이가 있다. 73년생 아침부터 사소한 사건으로 무능을 실감한다. 85년생 상대에게 원가를 바라지 말아야 덜 슬프다.



38년생 문서운이 길하니 매매가 될 것이다. 5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가는 것이 세상 이치. 62년생 주식 투자는 내일 다시 신중하. 74년생 인색하다가 인심 잃고 대화가 단절된다. 86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39년생 외부의 감언이설을 주의. 51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바가오는 격. 63년생 이웃의 도움이 있으니 차후 나도 베풀도록. 75년생 수입이 늘어나니 품위가 달라진다. 87년생 어려움이 생겨도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 했으니.



40년생 생각만큼 전진이 있다. 52년생 영업에 이익이 생기고 활력이 있다. 64년생 승진의 기쁨이 있다. 76년생 오전의 노력은 있었겠으나 오후 여유 있을 때 배풀어라. 88년생 아성과 부적절한 관계는 돌통 나서 모두 잃게 된다.



41년생 작은 고민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53년생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날 수 없으니 종이 떠나라. 65년생 신경질보다는 대화로. 77년생 여우의 꼬리는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8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보라.



42년생 삶의 질은 신념에서 결정되니 생각하자. 54년생 아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66년생 무리한 행동보다는 계획 아래에 실행. 78년생 노새 젊어서 노새 하다 나이 들면 슬픔만 남는다. 90년생 근거 없는 구설이니 모임은 다음날로.



43년생 조상님의 기운으로 뒤늦게 삶의 질이 평온해진다. 55년생 인생은 언제나 늦는 것이 아니다. 67년생 음주가 웬말? 79년생 잘못된 투자로 외화내빈이니 차 바꾸는 것은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 91년생 먼 곳의 인연을 만나지 못한다.



44년생 목표 자정에 가야 할 길이 멀다. 56년생 생각을 바꾸면 답도 보인다. 68년생 일이 많아지지만 도와주게 되니 초조함을 버려라. 80년생 돈 달라는 형제로 고민이 많으나 해결책은 어디에도. 92년생 오래전 투자의 결실이 보인다.



45년생 구정이 었그제 지났는데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57년생 죽마고우(竹馬故友)도 신용에서 나온다. 69년생 용띠와 만나서 남의 험담 하지 마라. 81년생 위생적으로 청결에 힘쓰자. 93년생 입춘대길 건강다경이니 마음을 포근히.



46년생 사돈에게 예의를 지켜서 신뢰를 얻는다. 58년생 동료와 힘을 합치니 조직이 강화된다. 70년생 모임의 다른 이성에 대해 삼각관계 만들지 않도록. 82년생 봄날에 꽃이 피듯 행운이 기다린다. 94년생 복 삼재처럼 내 뜻대로 풀려간다.



47년생 대인관계에 주의. 59년생 운이 악할 때는 잠시 복지부동하자. 71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적다. 83년생 가정사라도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순리일 듯. 95년생 부모님께서 과거 베풀어준 공덕이 다시 되돌아오니.

김상회의四季

포전인옥, 성공으로



포전인옥은 중국병법의 36계 중 열일곱 번째, 적을 공격할 때 쓰는 계책인데 ‘돌맹이를 던져서 옥을 얻는다’는 뜻이다.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어 자기의 의도를 숨기거나, 작은 미끼를 던져 상대의 핵심 전술을 파악하는 전술이다. 현실에서는 미숙한 의견을 먼저 내놓아 상대방의 좋은 의견을 끌어내거나, 작은 이익을 던져 더 큰 이익을 얻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작은 미끼로 나와 상대방의 판세도 읽을 수 있다. 이는 군사 전략을 넘어 인간관계 그리고 운명 해석에도 중요한 의미이다. ‘돌맹이’는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주팔자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주에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재물운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러한 약점은 때때로 좌절을 만들지만, 포전인옥 계책은 이를 지혜로 활용하라고 일러준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협조를 얻거나 서로 힘을 합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약점을 억지로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드러내서 이득을 얻는 관계를 만드는 지혜이다. 명리학은 개인의 기질과 잠재력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이때 말하는 운명은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손에 든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을 어떻게 키워내는지는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기에게 주어진 씨앗을 키워내는 것을 운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때 포전인옥의 지혜가 빛을 발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돌맹이와 옥을 만나게 된다. 인생에서 마치 정제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는 돌맹이를 던질 때일 수 있다.運은 때로는 한발 물러서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제공한다면, 포전인옥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를 알려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8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9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초 6학년 학생 10명 중 1명 지원 서울권 국제中 지원자 역대 최대

5474명 지원… 전년대비 소폭증가
전국 4개 국제中 평균 경쟁률 17대1
대원 23.55대1로 전국 최고 기록

2026학년도 서울권 국제중학교 지원자가 2009년 개교 이래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 6학년 10명 중 1명이 지원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 영어 중심 수업과 높은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이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권 국제중 지원자는 총 5474명으로 지난해(5439명)보다 늘었다. 이는 서울 초등학교 6학년 학생(6만1619명) 대비 8.9%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 학생 10명 중 1명이 국제중에 지원한 셈이다.

전국 4개 국제중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17.43대1로, 대원국제중이 23.55대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부산국제중 22.39대1 ▲청심국제중 15.77대1 ▲영훈국제중 10.66대1 순이었다. 경남 선인국제중은 지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국제중 경쟁률은 ▲2022

학년도 11.76대1 ▲2023학년도 14.03대1 ▲2024학년도 15.54대1 ▲2025학년도 17.91대1 ▲2026학년도 17.43대1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권 국제중 2개교의 지원자 수는 2021학년도 3011명, 2022학년도 3242명, 2023학년도 4179명, 2024학년도 4596명, 2025학년도 5439명, 2026학년도 5474명으로, 개교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가 전년(6만8604명) 대비 6985명(10.2%) 감소했음에도 국제중 지원자는 오히려 늘었다.

종로학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영어로 수업하는 환경과 높은 특목·자사고 진학률이 상위권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울권 국제중은 한국사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을 영어로 진행한다. 2024년 2월 졸업생 기준으로 대원국제중의 특목·자사고 합격률은 70.9%, 영훈국제중은 58.5%로 나타났다. 서울권 국제중은 단순 주입제로 선발되지만, 입학 후 수업 적응을 고려할 때 이미 상위권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이나 유학 경

험이 있는 학생이 다수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권 초등학교 10명 중 1명이 국제중을 지원하는 현상은 교육열과 조기 경쟁 심화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권 국제중 지원자 비율(8.9%)은 202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고교 내신 5등급제에서 상위 10% 이내, 즉 1등급 인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중학교 단계부터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이사는 “대학 입시 경쟁은 고교 이후 본격화되지만, 서울권 국제중 지원 규모만 봐도 학력 수준의 격차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며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교육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권 국제중 주입제는 오는 20일 실시된다. 청심국제중은 10월 30일 주입제를 완료하고 오는 15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산국제중(10월 24일)과 선인국제중(9월 26일)은 이미 전형을 마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확대

서울시, 출산 신혼부부 최대 12년
청년은 월세 70만원→90만원 완화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차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한 신혼부부는 대출 이용 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릴 수 있고, 청년은 월세 기준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평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는 국민·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 한도 내에서 이차 지원을 받고 있다. 청년은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 3.0%(최소 1.0% 본

인 부담)까지 이차를 지원받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추가로 4년이 더해져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웠던 신혼부부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월세 비중이 늘어난 주거 시장 변화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기준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홍보대사에 가수 김다현 위촉

파주시가 가수 김다현을 파주시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김다현 씨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다현 씨는 앞으로 2년간 파주시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지역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약 중인 김다현 씨는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막내딸로, 2019년 곡 ‘꽃처녀’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이자 국악인이다. 이후 엠비엔(MBN) 경연 프로그램 ‘보이스투트’ 준우승, 티브이(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3위, 엠비엔(MBN) ‘현역가왕’ 3위 등을 차지하



(왼쪽부터)김경일 시장과 가수 김다현이 기념 촬영했다.

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국악적 깊이와 대중성을 함께 갖춘 가창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트로트 요정 김다현 씨가 파주시의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교육청, 김금희 작가 초청 ‘정감산책’

오늘 정독도서관 노벨문학라운지서
정근식 교육감·시민 등 100여명 참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일 ‘대운실 수리보고서’의 저자 김금희 작가를 초청해 정독도서관 내 노벨문학라운지에서 ‘2025년 제7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학 속 공간이 품은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과 공감의 메시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북



‘대운실 수리보고서’의 저자 김금희 작가. /서울시교육청

콘서트로 진행된다.
정독도서관과 창경궁 대운실은 오랜

시간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금희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자신의 작품 ‘대운실 수리보고서’에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간이 지닌 기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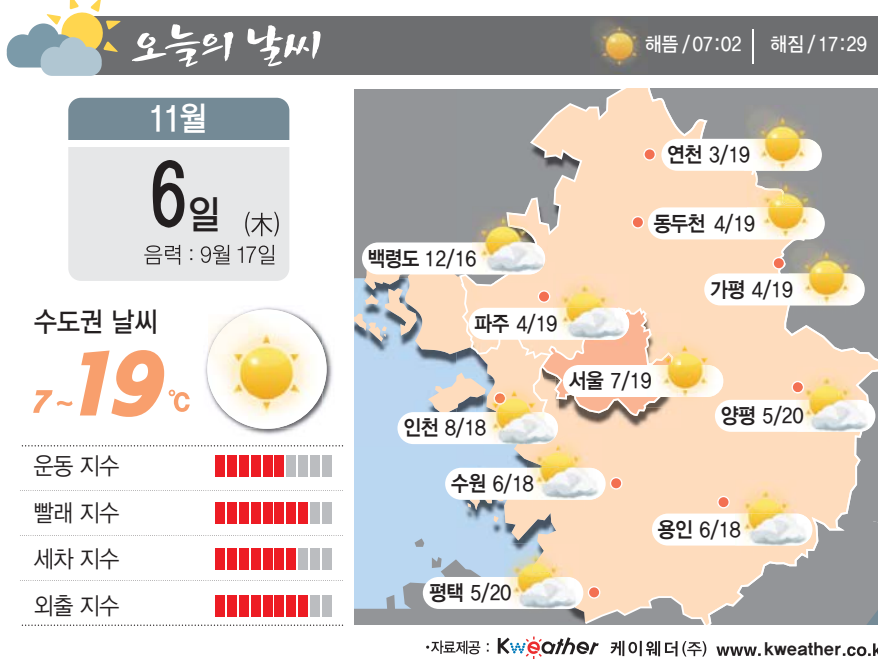
이어지는 정근식 교육감과의 대화에서는 문학이 교육과 사회에 전하는 의미, 그리고 회복과 공감의 가치를 주제로 교육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점점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하며, 참석자들은 사전 제출 질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작가와 교육감에게 직접 묻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감산책’은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시민소통 프로그램으로,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시민이 서울교육의 주체로서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문학은 우리 삶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하고, 교육은 그 경험을 함께 나누게 한다”라며 “정감산책이 시민과 함께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회복과 공감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美 뉴욕 신임 시장에 민주당 맘다니…득표율 50.4% /사건 뉴시스
▲ 日 곰 피해 사망자 올해만 12명…피해 극심 지역에 자위대 투입

▲ 트럼프, 공화당에 섰다운 종료 위한 필리버스터 정면돌파 주문
▲ 中, 美 ‘펜타닐 관세’ 맞대응 중단…보복관세 해제·추가관세 유예

▲ 벨기에 브뤼셀 공항 정체불명 드론으로 폐쇄…‘러시아 도발’ 의심도
▲ 멕시코 마약 카르텔 폭력 격화…연일 대책 요구 시위



경주 주요 호텔
APEC 마케팅 펼쳐
메뉴·객실 등 상품화
L1



Life

제약바이오협회
AI 기반 신약 개발
협력확대 주도
L2



알코올 빠지고, 짜릿함은 그대로... 헬스플레저에 취하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하이트진로 '하이트제로0.00'

최근 국내 주류 시장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무(無)·비알코올 맥주의 폭발적인 성장세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2021년 415억 원에서 2023년 644억 원으로 2년 만에 55.2% 성장했다. 2027년에는 94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단순히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위한 대체재'로 인식되던 무·비알코올 맥주가 이제는 MZ세대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트렌드와 맞물려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헬스플레저(Healthy Pleasure)' 문화 확산, 음주운전 방지 등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 외식업계 판매 허용 정책이 맞물리며 시장은 고속 성장 중이다. 국내 무·비알코올 시장의 성장사에는 단 하나의 브랜드가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바로 하이트진로음료의 '하이트제로0.00'이다.

◆국내 첫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 시장의 문을 열다

국내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은 2012년, 하이트진로음료가 '하이트제로0.00'을 출시하면서 비로소 문을 열었다. 당시만 해도 '무알코올 맥주'는 소비자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음료는 '맥주의 시원한 맛은 그대로, 알코올은 완전히 제거한' 새로운 음용 경험을 제시하며 음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책임 있는 음주 문화'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

"맥주처럼 즐기지만, 술이 아니다"하는 독특한 콘셉트는 곧 직장인, 운전자, 운동 전후 소비자 등 새로운 타깃층을 형성하며 시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올프리(All-Free)' 혁신으로 시장 판도를 바꾸다

2021년 하이트진로음료는 '하이트제로0.00'을 전면 리뉴얼하며 한 단계 진화시켰다. '알코올 0.00%'에 더해 칼로리·당류까지 모두 제로화한 '올프리(All-Free)' 콘셉트를 도입한 것이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전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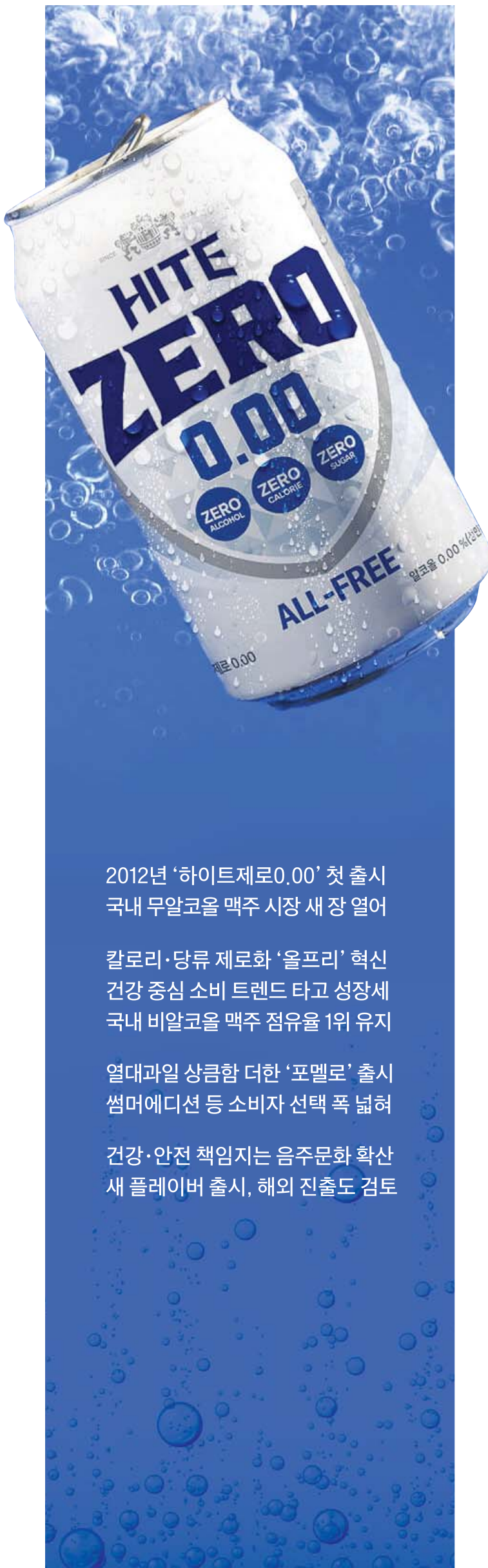
이후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출시 첫 해 약 600만 캔에 불과하던 '하이트제로0.00'의 판매량은 2022년 2,700만 캔으로 약 4.5배 늘었고, 2023년 말 기준 누적 판매량은 1억 3850만 캔을 돌파했다. 판매량을 거치며 비대면·건강 중심 소비 패턴이 강화된 점도 성장세에 불을 붙였다.

현재 '하이트제로0.00'은 국내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94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점유율 37.5%로, 전년 대비 2.2%p, 2023년 대비 6%p 상승했다.



하이트제로0.00썸머 에디션.

/하이트진로음료



2012년 '하이트제로0.00' 첫 출시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 새 장 열어

칼로리·당류 제로화 '올프리' 혁신
건강 중심 소비 트렌드 타고 성장세
국내 비알코올 맥주 점유율 1위 유지

열대과일 상큼함 더한 '포멜로' 출시
썸머에디션 등 소비자 선택 폭 넓혀

건강·안전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새 플레이버 출시, 해외 진출도 검토



◆플레이버·채널 다변화로 '1등 브랜드' 입지 굳혀

하이트진로음료는 시장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품 라인업과 유통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2월, 출시 13년 만에 첫 라인업 확장작인 '하이트제로0.00 포멜로'를 선보였다. 상큼한 열대과일 풍미를 더한 이 제품은 젊은 소비자층의 취향을 겨냥해 '무알코올 맥주도 맛으로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 2024년 여름에는 시즌 한정판 '썸머에디션'을 출시하며 '가볍게 마시는 여름음료'라는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시했다.

유통 채널 역시 폭넓게 확장됐다.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는 물론, 이커머스 플랫폼과 배달앱 등 온라인 채널까지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알코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하이트제로0.00은 국내 무알코올 시장을 처음 열고 책임 있는 음주 문화를 정착시킨 브랜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레이버와 즐길거리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책임 있는 음주' 문화

하이트진로음료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 경쟁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책임 있는 음주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알코올을 완전히 배제한 맥주맛 음료를 통해 건강과 안전을 모두 지키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소비자 니즈에 기반한 신플레이버 출시와 프리미엄·해외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이미 일본, 유럽 등에서는 '논알코올 맥주'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하이트제로0.00'이 K-음료의 새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한편, 하이트진로음료(주)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음료 부문 계열사로 '좋은 음료를 마시는 즐거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40여 년 역사의 국내 대표 음료기업이다. '진로토닉워터'와 '석수'를 시작으로 '하이트제로0.00', '블랙보리' 등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이며 음료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한 친환경 패키징, 사회공헌, 건강 음용 캠페인 등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하이브 방시혁 경찰 2차 소환조사...“1,900억 원 부당이익 혐의”
▲손흥민, MLS 올해의 신인상 투표서 2위...개인상 2관왕 무산
/사진 뉴시스

▲K리그 2부 부천FC, 6경기 무패 상승세...1부 승격 겨냥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유벤투스 이적' 가능성 제기

▲오타니, 내년도 LA다저스 우승 약속...“새 우승 반지 걸 것”
▲‘옴타아웃’으로 FA 풀린 김하성...애틀랜타 재영입 가능성도



LG전자

VICTORY 4 YOU

응원해 주신 당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번째 우승에 이르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혜택 1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고객 감사 이벤트

- LGE.COM : 400대 한정 특가 및 4층 랜덤 쿠폰팩 지급 | 기간 : 11월 7일(금)~11월 16일(일)
- LG전자 베스트샵 및 LG 가전 매장 : 우승 기념 특가 11개 제품 운영(25개 모델) | 기간 : 11월 7일(금)~11월 16일(일)

※세부 행사내용 및 행사 모델은 LGE.COM, LG전자 베스트샵 및 LG 가전 매장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상 모델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혜택 2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벤트

- Event 1 LG전자 멤버십 앱 SNS 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1,004명 추첨하여 경품 증정 | 기간 : 11월 7일(금)~11월 30일(일)
- Event 2 LGE.COM에서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멤버십 포인트 증정 | 기간 : 10월 29일(수)~11월 16일(일)

※이벤트 참여 방법 및 경품 등 자세한 내용은 LGE.COM, LG전자 베스트샵 및 LG 가전 매장 통해 확인 바랍니다. ※경품 종류 및 수량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지닷컴에서 확인하세요
LGE.COM